朝鮮日報
夕刊 三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米大陸獨自的 國際聯盟出現?

汎米會議압두고 華盛頓政府 不戰條約案提出

【華盛頓二日發同盟】米國政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릴平和會議를 앞두고 華盛頓駐剳大公使를 通하야 亞米利加洲各國政府에對하야 不戰條約案을 提示하엿다 各國政府가 支持를表明하면 正式會議에 上程、몬로主義를 强化하야 事實上亞米利加洲는 獨自의國際聯盟을 結束할豫定으로 보고잇는데 條約案의要旨는 如左하다

一、締約各國政府는 國際間의紛爭을 平和的으로 處理할義務를 負擔함
一、平和處理에 失敗할때에라도 事前에미리 理由를明示하야 明確히宣戰을 布告하던지 宣戰布告의決意를 明示한 最後通牒을 通達치안흔限 戰端을開치안홈
一、中立各國政府는 交戰國에對하야 武器彈藥等의輸出을 禁止하고 金融을斷絶함
一、亞米利加洲內의政府가·亞米利加洲以外의 各國과 交戰할때에는 右制限은適用치안홈
一、中立國政府는 自國民과 交戰國사이에生하는 通商貿易을 制限乃至禁止할수잇슴
一、協約實施調整機關으로서 常設國際專門委員會를設置함 締約國의國務長官又는外相으로서組織함

(寫眞은 루즈벨트大統領)

民主黨스미드氏 共和黨支持言明

選擧結果豫斷不許

【紐育一日發同盟】大統領選擧戰을 一個月後에두고 民主、共和兩黨의政戰은 漸次白熱化하기에 이르렀다 民主黨의重要人物알프레드·스미드氏는 一日俄然 共和黨候補의알프레드·랜든氏를 支持할旨를 言明하엿다 從來形勢로는 뉴뗄政策이 如何히不評判이라하더라도 俄然루즈벨트氏의再選이 大體틀림업다고 推測되고잇든데 스미스氏가 共和黨의陣營에投한結果 選擧戰의結果는 全然豫斷할수업는形勢에 이르렀다

(사진은 스미드氏)

瑞西聯邦政府 防衛新法案可決

【伯林一日發同盟】瑞西國會는 一日共産黨議員을包含한 滿場一致로서 瑞西聯邦獨立權威에 對한 防衛法案을 可決하엿다 現行法에 依하면 瑞西聯邦을 攪亂하고 他國으로하야금 內政干涉의 口實을 與하는等活動乃至 劃策에 從事한者는 一年以上五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는 規定이 成立되엿다 新法令의改正要點은 如左하다

一、瑞西國外에서 本法에定한犯罪에從事한者에도 適用함
一、瑞西聯邦或은 그一部를外國에併合又는 從屬시길라고 企圖하며 또瑞西聯邦을 構成한 郡或은 郡의一部를 聯邦으로부터離反시길라고하고 다시外國으로하야금 瑞西聯邦或은瑞西聯邦의 一部에 對하야敵意를養成할라고한者 又는宣戰布告後故意로 敵國援助를 企圖한瑞西國民又는 瑞西在住의外國人은 十年以上의 懲役에處함

行動開始命令一下에 兩軍遂戰鬪開始

曉頭壯烈한前衛遭遇戰

【札幌電話同盟】三日午前五時統監部로부터 行動開始의 命令이 내려 秋冷이 이미濃厚한 北海道天地를 震撼하는 陸軍特別大演習이 始作되엿다

이날 石狩山野一帶는 昨夜參加將兵의 士氣騰騰、北門軍鎭의 第七、第八兩師團精銳가 相戰相應의 情景이엿다

昨夜來互相對峙의 南北兩軍은 今曉일즉이 此處 彼處에서 斥候小部隊의 衝突을 演하고 兩軍偵察新銳機가 敵陣狀況을 探知코저飛來하야 壯烈한 空中戰이 展開되엿다 騎兵、軍用犬이 모다 달리는等 戰況은 漸次高潮、午後八時頃에는 室蘭本線 三川驛附近에서 兩軍最初의 先遣部隊의 衝突이 惹起되엿다

一方 石狩平野西方에는 江別村方面으로 室蘭街道를 急進한 北軍左翼部隊는 千歲村附近에서 南軍의精銳 ○○과衝突、여게서 壯烈한 遭遇戰을 演하엿다

午前十時 南軍主力部隊는 右翼에前進、將次 一大會戰이 展開되려할때에 演習은 一旦休止되엿다

大元帥陛下께옵서는 三川驛御着、御乘馬하시고 一時間三十分의 長時間 戰線을御巡視、下元南軍師團長의 上奏를 기다려 演習은再開、이윽고 南軍은 一氣에敵을 驅散하려고 北軍을 逐次擊退、北軍의 後線部隊는 善戰하야 張川線에 防禦、大元帥陛下의 咫尺之地에서 壯烈한白兵戰이 展開되엿다

午後三時頃 다시 演習을停止、大元帥陛下를 奉送하고 兩軍은 戰線整備에 着手하엿다

南總督에 勅使被仰付

【東京電話同盟】恒例에依하야 朝鮮神宮例祭에 다음과가티 勅使參向의 御沙汰가 게섯다

朝鮮總督 南次郞

官幣大社朝鮮神宮例祭에 勅使로써 參向御沙汰가게섯다

國防會議後 川越、蔣會見?

【上海二日發同盟】蒲黃한南京의情報에依하면 廬山에서 日中兩國의動向을 重視하고잇던 蔣介石氏는 國防會議에 出席한다는 意義로 近日中南京에 歸還하기로되엿다 川越大使와의 會見은 國防會議에서 最高意見을決定한後에 行할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長沙領事館側에 爆彈放置를發見

中國側의事實隱蔽的態度에 省主席에嚴重抗議

【漢口二日發同盟】長沙來電에依하면 二十九日未明 長沙日本領事館 高井領事代理官邸의·土壁을相距한 二間餘의 叢中에 향을傍力裝藥하고잇는 大型爆彈一個가 放置되여잇는것을 通行中의 中國人이發見하얏다 公安局은 그事實을秘密하고잇는데 三十日에 이르러 日本側에 判明되엿다 따라서 高井領事代理는 事件을重大視하고 湖南省主席 何鍵氏에 對하야 即時嚴重警告를 發하얏는데 何鍵氏는 事實을否認하야 有耶無耶에 埋葬 할라는 態度를示함으로 高井領事代理는 一日正式으로嚴重抗議를提示하얏다

革命國防委員會 決定要項

【부르고스二日發同盟】革命國防委員會는 二日午前會議를 開催今後作戰에 對하야 協議한結果 叛軍根據地 指導部의編成 其他에對하야 다음가티 決定하엿다

一、戰況進展에伴한 叛軍根據地를 가스레드市로부터 발라돌리드市에移轉하야 首都마드리드攻略에 一層積極的方針을取함
但國防委員會는 當分間부르고스市로부터 옴기지안홈
一、폰떼將軍 라리켄드將軍 바레라將軍을 各各 아라공·과 다라마·롤레도司令官에任命、모라將軍은 總司令프랑코將軍의 參謀長으로서 발라돌리드市의 根據地에잇기로함

叛軍空軍首都爆擊

【마드리드三日發同盟】西班牙叛軍 空軍의 精銳數臺는 二日夜陰을타서 首都爆擊을 敢行、政府軍飛行場을 目標로 猛射하엿다 但爆擊은 軍要建造物에는 命中치안헛다

叛亂軍總司令 不戰入城을計畫

【롤레도二日發同盟】叛軍總司令프랑코將軍은·마드리드總攻擊에 압서 자못作戰을凝하고잇는데 可能한限砲火를相交치안코 首都入城을實施하기爲하야 다음方法을 考慮하고잇다고한다

一、兵器에依한正攻法에依치안코 專혀마드리드市民에對한「恐慌」策을 取할것
一、右方法에는 三部隊로成立된 叛軍으로써 包圍陣形을保持하야 마드리드郊外에到着 砲壘를構築하야 마드리드近接地帶에砲擊을加할것
一、마드리드內外가 恐慌狀態에 陷한것을기다려 徐徐히最後進軍을實行할것

川越、蔣兩氏會見 來週中에實現乎

【南京二日發同盟】廬山에 飛來하야 日中交涉經過及 行政院會議內容을 報告하고 指示를바든 何應欽 高宗武兩氏는 二日午後五時 飛行機로 南京에歸還、即時 外交部長 張群氏에 詳細復命하고 今後의對策을 協議하얏다 그結果 兩三日中川越大使에 對한蔣介石氏의 意圖가 傳達될것으로期待된다 各方面의情報를綜合하면 蔣介石氏는 兩三日中南京에 歸還하야各方面으로부터對日方針의 最後的態度를 決定한後에 川越大使에 會見을 申請할豫定이라하며 川越、蔣兩氏의 重大會見은 來週中實現될模樣이다

電力國策確立 民政黨에서協議

【東京電話同盟】電力國策의早速한確立을 期하고자 民政黨有志代議士 二十二名은 二日午後六時부터 新橋東洋軒에 會合하야 各種協議한結果 如左히 協議를하야 速히 黨의方針을確立하기로 決議하고 代表를 選出하야 町田總裁를 訪問하야 幹部를督勵 强硬進言하기로 하고 同十一時 散會하엿다 또同夜會合에서 周旋人을 選出하야 今後適宜히 會合을 開催하야 同運動을 繼續하기로 되엿다

"協議"

吾人은 電力國策實現이 急務인것을 痛感한다 따라서 遞信省案의 精神을 다하야 速히 我黨의方針을 確立하야 國民의 輿望에副하기를期한다

外務人民委員長 리트비노프氏辭職?

反幹部陰謀事件에關聯하야 巴里탕紙의報道

【巴里二日發同盟】蘇聯反幹部의 陰謀事件審理의結果 부하린氏、라데크氏等 巨頭의頭上에도 司直의眼이 비추이게되어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 스탈린書記長과의 사이에서서 크게斡旋하야 事件의擴大阻止에 努力하엿다고한다 二日 마탕紙 모스코特派員은 리트비노프氏는 兩派間에 끼여서 進退兩難에 陷하엿는데 近近外務人民委員을 辭職하지안홀수업게되리라고 報道하엿다 (寫眞은 리트비노프氏)

불룸佛首相 各國代表會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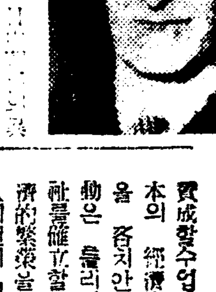
【주네브二日發同盟】佛國代表를 率한 불룸首相은 二日午前쥬네브市에 到着하엿는데 即時英國代表이든外相과 會見하고

一、法貨切下에伴한 英佛兩國間의 貿易調整
一、로카르노會議促進案

等에對하야 協議를遂하엿다 다음 루마니아代表 안로네스코外相及 蘇聯代表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과 會見하엿는데 就中리트비노프 外務人民委員과는 前後二時間에 亘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리트비노프代表는 獨逸政府最近의 불쉐비즘排擊運動을 指摘하고 歐洲의領土的現狀維持에對하야 各國政府가 緊密한協力을 講究치안흐면아니된다는言을力說하엿다고 한다 불룸首相은 二日다시 波蘭代表벡크外相과 會見 佛國波蘭兩國間의 借款協定 其他에對하야 協議를 遂한後에 明日巴里에 歸還할豫定이다

中國統一完成은 極東福祉의確立

中國이興하면日本은亡한다는觀念은錯誤 日中關係와 리튼卿談



【倫敦二日發同盟】日中關係의 非常한 緊張에 英國輿論은 非常한 關心을 示하고잇는데 二日리튼卿은 다음과가티述하엿다

日本의 一部에서는 中國이統一國家로서 繁榮하면 結局日本을 滅亡시킬것이라고 하야 中國에 對한 日本의 地位를 確保할 必要가잇다고 생각하는 模樣인데 이見解에는 못贊成할수업다 何人이던지 日本의 經濟的必要에는 同情함을 吝치안흐나 日中兩國의 行動은 틀리엇다 極東에서 福祉를確立할 要諦는 中國의經濟的繁榮을 實現함에잇다 何人이던지 이事實을 充分認識하고잇는이는적다 主要諸國은 相互援助를 希望하는 產業가中國에 協力할수는업슬가 日本은 決코 이로써 損失을 招來치는안흘것이다 또萬若日本이中國의友誼와信賴를 回復할수잇다면 所得은莫大할것이다 (寫眞은 리튼卿)

重光駐蘇大使 二日에新京訪問

【新京二日發同盟】滿中視察途中에잇는 重光駐蘇大使는 二日午後五時에 東京發하얏는데 駐滿大使館、滿洲國外交部는 이機會에 對蘇外交의 中心이되여잇는 滿蘇國境問題에 對한 現地側의 意向을 附하야 日滿蘇三國外交의 好轉에 資케하기爲하야 五日合同懇談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滿洲國外交部는 日本側과 關聯의立場에서特히滿蘇國境地方의視察을 希望하는同時에

一、滿蘇國境確定에對한 滿洲側의意向
一、蘇聯邦側의態度不明으로 多年懸案이되여잇는 滿洲國領事館의蘇聯設置問題의解決方策
一、滿蒙紛爭에關한 滿洲國側의意向

等에對하야 詳細說明하고 將來의滿蘇外交交涉의斡旋을依賴할터이다

總督府局課長을 滿洲視察에派遣

朝鮮滿洲依存深化의 第一步

로써 相互의現狀認識을 圖하야 總督府局課長의 滿洲視察은 汎히行할方針下에 이미 大竹內務局長 相川外事課長이 滿洲視察中이다 다시 穗積殖產局長 山田遞信局長이 渡滿할터인데 그에압서 岸土地改良課長 橋本水利課長은 橋本技師 光石 谷口兩屬을 帶同하고四日 午前三時十五分發 渡滿하야 新京 哈爾濱 齊齊哈爾 奉天 錦州 承德 北平 天津 營口를 視察하고 二十日午後二時五十分着 歸任豫定이다 今後도 繼續하야 各局課長의 滿洲視察을 시길方針이라한다

蘇聯側拉致의 金鑛船返還要求

【新京二日發同盟】去二十五日北滿金鑛船興安丸이 蘇聯邦側에拿捕된事件에 對하야 滿洲國外交部는 蘇聯側에 嚴重抗議하고被拉致者及 被拉致物件의返還을要求하엿는데 蘇聯側은不當히 이에 不應하고 返還을不肯함으로 北滿金鑛勞動者三百名은 糧道가斷絶되여 困窮에 陷하야 重大한人道問題化하고잇다고한다 따라서 滿洲國外交部는 再次日滿官憲의名義로 蘇聯側에 被拉致者 被拉致小麥七十袋船舶의 返還을 要求하기로되엿다

桑島東亞局長 神戶出發南京行

【神戶電話同盟】川越蔣會談을압두고我外務當局의眞意를傳達하려急遽南京에赴하는 桑島東亞局長은三日午前十一時 神戶出帆의郵船長崎丸으로出發、同船으로新任滿洲總領事로서 赴任하는 內田五郞氏도 出發하엿다

桑島局長談

【東京電話同盟】南京에向하야二日夜出發한 桑島東亞局長은 如左히 同氏의使命 其他當面問題에 對하야 말하얏다

自己는 一日 二日에亘하야 廣田總理를 비롯하야 陸海關係者와 會合協議한結果 그意向을 川越大使에 傳達하고 大使를通하야 蔣行政院長 張外交部長에 日中國交調整의 日本의眞摯한態度를 徹底시킬것이 使命이다 따라서 이使命을 終了하면 國民政府要人과 會見할必要는업다 蔣介石氏周圍의 有力者가 서로 往來하며 胸襟을 開하야 말할時代가되면 兩國關係는 더욱 良好하리라생각된다 目下狀態로는 有田外相이 말하는것과가티 交涉의成否如何에 不拘하고 眞로 重大하야 善惡이 判然할것이다 長久한 過去의 關係에 鑑하야 今回交涉으로 조곰이라도 良好된다면 大收穫이다 中國이 誠意를示하면 조흘것이나 今後라도 느지는안타 蔣介石氏도 川越大使에 사람을 通하야 會見을請하여온 事實로 보면 日中國交調整에 對하야 責任을感하고 出馬한日本側도 蔣介石氏의 誠意잇는 交涉結末에多大한 希望을가지고잇다 最後에北中事態는 日本側은 滿洲國經濟發展의 見地로보아 同地域에서 日滿中三國의 關係를、特히緊密化할것을 가장希望한다 적어도日本의誠意를 中國側이 理解하야주면 北中은 明朗할것인데 依然히 北中事態의 解決에 疑惑을갓고 理解치못하는것은 遺憾이다

마드리드駐在의 高岡代理公使에 避難命令

【東京電話同盟】外務省에到達한 西班牙로부터 外務報告는 一齊히 叛軍의勝利를 傳하고 政府軍의敗退를 推測되여 이제 首都마드리드陷落은 目睫에 迫到하엿다는데 有田外相은 一兩日前마드리드府에 生命을 賭하고 殘存하야 刻刻으로 正確한 情報의打電에 努力하고잇는 在西班牙代理公使 高岡書記官에對하야 『情勢가 逼迫하면 適當한地點에 避難하라』는 訓電을發하엿는데 아즉 返電이업서 그安否는 憂慮되다 目下 마드리드府에 殘留한外交團은 約二十個國으로 모다 撤歸準備를 整頓하고잇다

人事·集會

▲大野政務總監 來十三日執行될 國幣小社龍頭山神社列格奉告祭에 勅使로써 參向하기爲하야 十一日午後十時五分發列車로 釜山向發、十二日慶南地方農村視察後 十三日祭典參向 十四日朝歸京豫定
▲神島新吉氏(新任警務局大阪派遣員) 五日午後三時京城驛發赴任
▲李一雨氏(大邱實業家)宿患으로 九月三十日大邱府內西城町自宅에서長逝、永訣式은 四日午前九時 達城公園前廣場에서
▲朴熙道氏 二日午後四時市內新設町一九八自宅에서逝去

八面鋒

◇協定은 하라하면서도 專門的問題에 이르러서는 代表間에 意見이 틀린다는것이 英蘇會談。
◇利害의銳角을 둥글니라하는 것이 國際會議의 出發點이니 一致만 바라는것은 當初부터 失手。
◇英國政府에서 公然히 再軍備에 着手하엿다고 小協商國側에서말성。
◇인제와서 軍備云云을 가지고 公然히 抗議云云은 突然한 앙탈이아닐가。
◇英保守黨大會에서 植民地는 返還치안켓다고決議。
◇返還치아니해도 괜찬흔일이라면 애초부터問題도안될것을 이러니저러니 하는것을보면 마음에걸리는點이 잇는게지。

「예수」교는서양종교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실 때에 말슴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얻어 「예루살렘」과 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따끗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하신대로 교회는 먼저 「예루살렘」에 설립되여 그 처음 오천명식 잇어 도라오고 차차 교회가 외타 방국에도 설립되여 「소아시아」 전폭에 미치게 되엿다

사도 바울은 두번재 전도 려행을 떠나 「소아시아」에 이미 설립된 교회를 방문하야 권면하고 동방을 향하야 전도의 발걸음을 옮겨 노코려하엿으나 어떠한 감동이나 사정 형편의 절제로 인하야 그대로 지지 못하고 서으로 「드로아」 항구에 갓것이다 이는 「아시아」 「마즈」 항구로서 바다 건는편 서편 언덕인 「마게도냐」 따를 대하야 잇는 것이다 거긔서 다시금 하나님의 지시를 바다 배를 타고 즉시로 건너서 「마게도냐」 첫 성이자 「유롭아」의 첫성인 「빌닙보」에 이르럿다 「아시아」에서 「유롭아」로 건너간 첫 걸음이엿다

다시 동방으로 오날에 와서야 전파된은 무슨 리유일가 이는 아니하고 서으로 「유롭아」에 전파하야 거긔서 성숙되여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섭리일것이니 사람의 식견으로 판단 못된다 그러나 사실만은 그대로 된것이니 이전엔 각까운 교의 분기점이 여긔 잇는것이다 흑은 지리상 관계로 흑은 민족성 그러케 되엿슬넌지 하여간 이러케 전파의 길을 밟은 「예수」교가 「유롭아」에서 근이천년 동안 잡세력을 준비하여 가지고 과학 발명과 멍에를 아울너서 근대에 세계적으로 대비약의 선교 사업을 이르킨것이다

京城外國語學院 中語速成科 學生募集 ◇晝間部 ◇夜間部 十月八日 ◇校址 京城府...

耳鼻咽喉科 醫學博士 美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入院室完備

醫學堂眼鏡店 醫專病院眼科指定 檢眼無料 檢眼、洪鍾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電光三二二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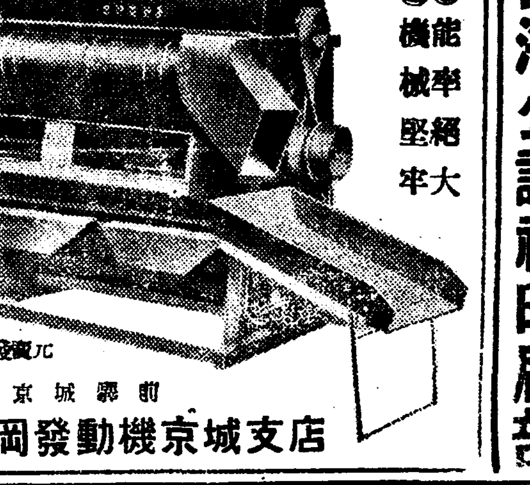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利益만主로本業副業으로男女 小兒遠近不問 自宅에서 할수잇는職業 年中無休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急務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간질엔秘方(칸사르)를쓰시요 特效가업스면약가반환 ... 京城鍾路四丁目 ... 私書函光化門局三七

最新發賣 박가구리무 박가해지마주 박가지우분 박가수배유 박가향유 박가... 本舖 京城鍾路四丁目 電話光化門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電話光七五一七番

朝報案內 恩給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サイトカ 有意하신분은即接面談 京城府貞洞町一五 ケ・カス白
電話 安價賣 光化門 ... 京城大門通 電話仲買店

얀마ー動力用脫穀機 稻麥兼用 新發賣品 朝鮮理想號 ●能率絕大 ●機械堅牢 ●撰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京城支店



印刷 機械十六頁機八頁各臺를近近貴入함 讓渡하실분은至急 直接來談하시오(仲介人辭絕) 京城竹添町一丁目一〇 株式會社 四海公論社印刷部

問屋 繩、叺、莚、麻袋 空罐、並ニ空壜、米雜穀、飼料 釜山府大橋通一丁目十六番地 合資會社 永進商會 電話(二)六四二番 振替釜山七八七六番 秋期叺用叺在庫品豊富 特別精勉합니다

朝鮮料理 國一館 安養驛前 天高馬肥의가을! 하이킹과 野遊에는 初秋의名物葡萄와밤(栗)의 名產地인 安養으로!!

開業披露 順天藝技券番 順天邑榮町 電話一四一番

支店長招聘(全鮮各一道一名式) 但只二十五歲以上男子 一個年國納稅二百圓以上納入者로서堅實鞏固한活動家를希望함 待遇 月收百圓以上二百圓程度其他收入이有함 右希望者는自筆履歷書二通、本人納稅證明願一通名刺判寫眞一枚郵送又는直接來社할事(返信料六錢要)

京城駐在社員(男女)若干採用 男子 二十五歲以上中學卒業程度 女子 二十歲以上 高女卒業程度【要保證人二名 自筆履歷書詳細來談】京城府元町二丁目二十一番地 東滿商工株式會社 電話龍山(3)二七七一四番

西海를猛襲한突風慘禍!

七十餘名乘客태운 發動船一隻沈沒

仁川八尾島近海에서遭難

昨夜의暴風激浪으로

【仁川支局電話】 지난이일밤의 폭풍으로 인천바다에는 풍랑이 심하야 발동선 한척이침몰되엿는데 선장외 사명은 구조되엿고 칠십명의승객은 모다 침몰된 록도환(鹿島丸)속에 남어잇스나 아직도 풍랑이 심해서 조난한 현장까지는 못가고잇다

이제 그자세한 사정을 들으면 서산군성연면대산면(瑞山郡聖淵面大山面)의 압바다에서 인천긔선주식회사 소속 록도환(鹿島丸은 지난이일 오후 세시삼십분경에 승객 륙십사명과 선원일곱명을 합한 칠십일명을태우고 인천으로오는도중 동일 오후여덜시삼십분경 팔미도(八尾島)로부터 약두키로를 떠러진 해상에서 맹렬한 풍랑과 폭풍으로말미암아 록도환은 마츰내 침몰되고말엇다

록도환이 침몰되자 그뒤를 따러오든 조선해양사(朝鮮海洋社)소속 서산환(瑞山丸)이 그들 구조에 착수하야 록도환의 선장 김성윤(金成允)외 네명만 겨우구조하야 내엇고 그남어지 예순여섯명은 모다 물속에 침몰된 록도환속에 남어잇다한다금삼일아츰에 인천서 보안주임 동해림(東海林)씨등 경관일대는 경비선 작환(鵲丸)과 인천 긔선회사소속 춘해환(春海丸)에 분승하고 오전일곱시삼십분경에 조난현장을 향하야 출동하엿스나 아즉도 풍랑이심하야 도저히 항행할수업슴으로 어쩔수업시 인천으로 다시도라왓다 그리고 동열한시경에 조선우선회사 소속의 큰기선을현장에 급행하엿다한다 (號外再錄)

겨우八名만救出

行方不明者六十三名

칠몰된 록도환에는 충남서산군 성연면 성연리(瑞山郡聖淵面聖淵里)에서 오십륙명 서산군대산면 태요리(大山面大要里)에서 다섯 명대산면대산리(大山里)에서 두 명대산면삼길리(三吉里)에서 한 명으로 합계 륙십사명이 탓는데 네명은 구조되고 륙십명은 행방불명이며 선원일곱명중에서 네 명은 구조되고 세명은 행방불명 이다구조된 사람은

▲선 장 김성윤(金成允)
▲긔관장 김광복(金光福)
▲선 원 김성룡(金成龍)
▲국 김진성(金辰星)
▲승 객 임경남(任慶南)
(〃) 최순환(崔順煥)(三〇) 윤태억(尹泰億)(〃)김응삼(金應三)(三〇)以上六名

破損된船體의 一部를發見

로푸에매달려 八名이救助

船長 金成允談

별항=록도환(鹿島丸)이 침몰 되엿다는 급보를받고 경비선세관의 궁도환(宮島丸)도 목하출장소의 응환(鷹丸)해양사의 례산환(禮山丸)등이 현장에 급행하야 수사한결과 삼일오전한시반경에 팔미도(八尾島)의 동남약삼해리(海里)밧의 지점에서파손된 선체의 일부를 발견하엿다 그러나 마침 만조(滿潮)이요 또 풍랑이 노파서 구조하기에 곤난하기때문에 풍랑이진정되기를 기다리여서 구조의작업에 착수하기로 하엿다한다

우리배는 어제저녁 인천항으로 입항하고저 팔미도로부근에 다달앗슬때 별안간에 모라치는 폭풍우로 물결이 배를가로덥처 진행노력을 일허버렷다 이때에 마츰 뒤따라오든 례산환(禮山丸)에서 이광경을보고 긴급 로푸를 던젓슴으로 승객들수십명은 저마다 『로푸』에 매여달려 나오랴고하엿스나 원악 심한풍랑으로 대부분 물에떠러저버리고 우리여덜명만 구조된것이다 선장된나로서는 실로 면목이업다

高丸도顚覆

數十名行方不明

【廣島電話同盟】 삼일오전여섯시 이십오분쯤 강전도(江田島)를 떠난 고환(高丸)(二五돈)은 오(吳) 해군공창직공 백여명을 태우고 오(吳)항으로 향하든도중 우루메도 서쪽 일천메돌쯤되는곳에서 때마침 몹시부는 북서풍때문에 전복되야 수십명이 행방불명이되엿다 행방불명자는 방금극력수사중이다

仁川出帆利通丸

黃海上에서遭難

百八十餘名의乘客安否不明

救助船共同丸도航行不能

삼일아츰에 경성무선전신국에 드러온 전보에의하면 중국긔선리통호(利通號)(일천팔백오십삼돈)는 이일에 인천(仁川)을 떠나 중국치프(芝罘)로 향해가든중 이일오후아홉시이십분경에 북위(北緯)삼십칠도십오분 동경(東經)일백이십오도오분의 바다우 (인천에서 구십해리되는곳)에서 차축(車軸)이 파손되여 항행할수업서되엿다고 구조를 청해왓다한다 인천에서는 역시 그쪽으로 항행중인 제삼천일공동환(共同丸)(일천사백구십구돈)에 전보하야 구조를 부탁하엿는데 그배로부터 온 답전에 의하면 그배는 적긔 리통환과 삼십해리되는 곳에 잇는데 상일 정오쯤에라야 조난현장에 다이게될터이라하고 풍랑이 심해서 항행이 매우 끈난하다하엿다 조난한 리통환은 인천에서 쌀일백오십도과 중국인 일백오십명과 일본인삼명과 선원삼십여명이타고잇서 가든길이엿다한다 방금 풍랑이 몹시 심함으로 근이백명의 인명이 매우 념려된다한다 (號外再錄)

現場엔點油痕

救助船도接近不能

六十四名은全部沒死로斷定

救助船鳩便第一信

【仁川에서 本社特派員李鍾模電話】 인천서(仁川署)에서는 제삼차로 삼일오후한시반에 도보안과장과 립석(立石)경부와 인천서 동해림(東海林)보안주임등이 경비선을타고 구조하려 나가고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양도환(楊島丸)도 오후두시에 현장으로 출범하고 인천긔선회사(仁川汽船會社)안성환(安城丸)은 제사차로 정오경에떠나갓스며 춘해환(春海丸)은 오후두시에모다 구조차로 떠나갓다 경비선에서 보낸 전서구(傳書鳩)는 오후두시이십분에 돌아왓는데 조난된 바다는 아직도 물결이 놉흔데 선체와 시체는발견할수업고 다만 부근바다에는 조난선에서 쏘다진 기름만이둥둥 떠잇다고 한다조난당한·칠십여명의 명부는 배와함께 물속에들어가서 알수업슴으로 인천긔선회사에서는 서산(瑞山)출장소로 급보하야 오늘밤안으로 그명부를 알리도록하엿다 인천해안통에는 조난자의 친척들이 나와서 소식을 기다리고잇다(三日午後三時)

豫想에등진豫想

今年農形은大豊

調査方法이精密한所致로

數字로는"凶作豊年"

병자년(丙子年)이라고하면 한갓미신에 갓가운 허튼것이라고 치고라도 금년의 농사는 모내일때 가물고 녀름에는 련사에업는 풍수해가 잇섯고 가을에쌀이 익어갈때는 도열병(稻熱病)으로 아주 판에쩔은 흉년인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만한것이 잇스나 어찌엄인지 삼일정오 총독부에서 발표된 금년벼농사의 제일회수확예상은 일천구백이십사만여석으로 소화오년의·만고의 대풍년이라든 일천구백사십수만석보다 만키 의팔십만석이고 과히 풍년도 아니엿든 작년수확고 일천칠백팔십만석에 비하면 이백십여만석이나 만허젓다 그러나 이것은사실상 풍년이 아니고 금년부터 조사방법을 고처 종래보다 좀 더정밀히 조사하엿든 관계이고 종전의 방식대로 조사한다며일천오백오십이만여석으로 전년보다도 이백사십칠만석의 감수이다 이소위 금년은 붕어사량가 라 속을비인 흉작풍년(凶作豊年)인것이다

◇

그러면 흉작풍년의 유래는어떠케진것이냐 첫재는조사를 정밀히 하기때문이란것인데 이것을다시말하면 종래는 군청이면 소가는곳에서 대충대충 조사하여왓든것을 금년부터는 조사지도원 이백이십명에 조사원일만 구천수백명을 동원식히어 땅이조흔곳과 납분곳을 세등급에나누어 매한평에얼마식 수확될것이냐하는것을 떼저가지고 조사하엿다는것이다 그때문에 조사수자가 늘어리라는것은 대강집작은하여도 흉년은 어쩔수 업는흉년이들고로 그처럼 대풍의 수자가 나오리라는것은 짐작못하엿다 금년은 그만큼 흉작이면서도 약사백사십여만석이 늘어스니 이것이 평년작(平年作)이라고만하면 이천삼백만석은되리라는것이다 그러면 어느것이 정확한것이냐 물론새조사를 확실한것으로 인정하고 금후의 곡정제의 돌아가는 형편을살피게된것이다

◇

그러타면 여기에 큰의문이생기는것이다 종래의 조선쌀이라는것은 대략 일천칠백만석가량 수확된다하고 그중에서 약구백삼십칠만석은 일본내지로건너가고도 약간은만주방면으로 가고그여재가 조선에서 먹는것으로 계산하엿는데 그조선내의 소비량이라는것은 결국은 팔백만석가량이엇다

이것을 이천백여만이라는 인구로 제하면 한사람압 일년간 먹는쌀은 너말(四斗)좀 남진한 것으로 녯날보다는 점점줄어진것이다 줄어젓다는 리유는 조선에서 사는일본내지인은 한사람압 한섬면되로 계산하고보면 조선사람만이 먹는량이 주려왓다는것인데 사실 조선사람의경제는 변변궁핍하여 가기때문에 쌀을 팔어서 만주조기타 잡곡, 심하면 초근목피까지먹는것도잇서 조선사람이쌀먹는량이 줄어간다는것은 피할수업는 사실이라고도 할것이다

◇

그러나 금번 조사에 의하면 일본내지로이 출되고 남은 약일천이백여만석(평년작으로잡고)은모다 조선에서 먹어왓다는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을한사람평균으로 따지면 약여섯말가량이 되다 이가운데는 일본내지인 이먹는것까지 합산되여잇슴으로 실상조선인의 먹는량은 여섯말이못될것이나 여섯말을먹는다치고라도 일본내지인만큼 먹으려면아직도 얼마나더먹어야 할것은 더말할것업다。 이와가튼사정으로 금번의새조사로된 일천구백십여만석수확에 상의흉작풍년은 종래 너말가량먹어오든것이 단거번에 두말을더 먹고 아직도 주린배를 약간더 배불르듯이 배를두드리며 겨양가를불러야할 형편쯤되엿다

◇

이날 공전의 태풍이라는 바람에 소동이 이러난곳은 미두(米豆)판이엇다 전날부터 이번 새조사에서는 석수가 늘어가는것을 예상하고 긔미시세(期米市勢)가 떠러지든것이 이날에 떠러저 이일부터 삼일정오까지에는 일본내지의 풍작이라는발표와 겹처서일원이나 떠러저다 이때문에 흉작간에 매매의 물결은따라서 리속을보는미두군간에는 이날의 폭락시세에 희비극이각가지로 연출되엿다

雜遝한틈타서

날려간"籠中鳥"

京城에서開城에팔려가는途中

묘령의녀성이 롱중조(籠中鳥)로 팔려가는도중경성역(京城驛)아페 혼잡을리용하야 어대론인지 종적을 감추어버린이야기— 본적을 경남진주군(慶南晉州郡)에두고 개성부서본정(開城府西本町)삼백구십일번지에사는 리정순(李[illegible]順)(二一)이라는 녀자는 구월이십팔일에 자긔집에서 인천부 화평리(仁川府花平里)에사는술장사리성녀(李姓女)와의사이에 이년반의 고용계약을 하고 현금이백이십원을 바덧다 그리고 다음날인 이십구일에 전긔 리성녀와 오전열시차로 개성을 떠나 인천으로향하든중 경성역에 도착하야 오후 한시십오분의 인천행발차시간까지는 약한시간가량이됨으로 그동안에 역전과롱상점에서 실과를 사가지고 정거장앞으로 오든중 혼잡한틈을타서 어대로인지종적을 감추고 말엇다 이녀자는 또한이름을 추월(秋月)이라고 부르는녀자로 지금까지에 수차 이가튼수단으로 전차금을 사긔횡령한 일이잇는녀자로 시내각서에서 방금 그향방을수사중이라한다

窃盜嫌疑의三店員

시내 종로서 사법계에 이일 시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 원정(原井)전긔부속품상점 점원 김룡산(金龍山)(二〇)등 세명을 절도혐의로 붓잡아다가 방금엄중 문초중인데 그들은 주인의물품을 노려 상점물건을 훔쳐내여 시내 각고물상에 팔아먹은것인데 그피해액이 천원가량되며 종로서형사실에는 그장물을 여러섬으로 가지고와이다

秋夜長긴긴밤에

跋扈하는賭博군들

시내 신당정(新堂町)백륙십이번지의칠호 김정운(金鼎雲)(三七)외네명은 초하로날 저녁여덜시 반쯤되어 숭인정(崇仁町)이백칠십삼번지 오명선(吳明善)의집에서 도박을하다가 순시중의 동대문서원에게 발각되어 전긔김은 체포되엇스나 종로구정목이백삼십번지 함상욱(咸相郁)(三五)과 오정목이백오십번지 리준인(李準仁)(二四)외 두사람은 도주하야버렷스며 현장에는 화투마흔여덜장과 판돈십사원팔십전이 허터저잇섯다고한다

連日滿員 朝鮮劇場 百發百中간다 無法地獄

四日까지延期上映 五日封切三大作品은 生活의道 國際間諜團 五月晴一本槍 團成社

"朝體"綜合大會

陸上競技開幕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七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陸上競技는 三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어 四十餘健兒의 入場式이 잇서大會本部委員長朴勝彬氏의開會辭가잇섯고 選手一同을代表하야 柳長春君의 宣誓文朗讀이잇난다음 百米豫選으로부터 競技의幕이열린바 夕刊마감까지의戰績은 다음과갓다

【八百米決勝】 1柳長春(遞信)二分一〇秒六 2洪顯文(二高)二分一二秒八 3韓祖鎬(京城)
【二百米決勝】 1金仁植(孔德俱)二三秒五 2李景蘇(養正)二三秒六 3崔辰鎭(仁川)
【千五百米決勝】 1柳長春(遞信)四分二九秒六 2金[illegible]鎭(二高)四分三五秒六、3安鳳珍(徽新)
【投砲丸決勝】 1張聖壽(養正)一一米〇一 2白承旭(養正)一〇米四〇 3姜永善(二高)一〇米一五
【百米決勝】 1韓喆鎬(孔德俱)一一秒三 2金應鎬(延專)一一秒六 3金漸浚(延專)
【四百米決勝】 1高圭復(養正)五四秒 2李景蘇(養正)五八秒 3韓祖鎬(京城)

◇綜合大會陸上競技入場式、下는 百米스타—트光景

大募集

一、有給女俳優 滿一年以上舞台의經驗이有한者

一、研究生 普通學校卒業程度以上의學力을有하고父母의承諾이有한者로二十歲未滿의男女
但研究期間中研究費에困難이有한者는便宜를與함
研究期限은三個月로三個月以後에는成績에依하야 月拾五圓以上의月給을支給함

一、女事務員 以上志願者는履歷書에寫眞一枚를添付하야十月末日까지郵送、或은來談하시오

一、演劇脚本 上演脚本에는相當한稿料進呈

京城府竹添町一丁目 東洋劇場事業部 人事係

神宮野球對陣

第十三回朝鮮神宮體育大會野球戰은 來十四日부터 中學部 專門部 一般部에 나노아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各部對陣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

【中等學校部】

▲第一回戰=十四日午前九時 A成商對仁商
▲第二回戰=十四日正午 B鎭南浦商工對京師 ◇同日午後三時 C龍中對釜山中學◇十五日午前九時 D裡里農林對[illegible]商業 ◇同日正午E京商對A의勝者
▲準決勝=十六日午前九時 B勝者對E勝者 ◇十七日午前九時 C勝者對D勝者
▲決勝=十八日午後零時半

專門部

▲十八日午前九時 京城醫專對京城高商

一般部

▲第一回戰=十五日午後三時 A大田對釜山◇十六日午後零時半 B平實對仁川 ◇同日午後三時 C大邱對京城
▲準決勝=十七日正午 A勝者對B勝者 ◇同日午後三時 鎭南浦對C勝者
▲決勝戰=十八日午後三時半

올림픽本隊東京着

【東京電話同盟】 올림픽代表本部隊平沼團長以下百十一名의 役員選手一行은 今三日午前七時半 東京驛着列車로 凱旋하엿는데 驛頭에는 內田後援會長外 스포—츠關係者와 役員選手의 家族一般歡迎等三千餘名의 盛大한 出迎이잇섯다

東興歡迎蹴球

洪原軍이惜敗

【洪原】 고국방문의 장도에올라 경성에서 분전하고 다시함경선 일대에서 원산 고원 영흥 마장등지로 전전하다가 시월이일 오후일시부터 본보홍원지국홍원하에 백금용(白金用)씨의 이미 심장한 개회사가 이스는후 홍원군선축으로 경기를 개시하엿스는데 결국일대영으로 원태의동흥군이 우승하엿는데 당일운집한 군중이 무려이천에달하여 근년에희유한 성황을 이루엇다한다

天氣予報

槪況 七二〇粍內外의猛烈한颱風은 潮岬의 南海上 約百粁되는데 잇서 時速 三五粁로 北北東에 進行中이다 또七四〇粍內外의 低氣壓은 城津沖과 日本海東部에잇고 沿海州에도 七四四粍가량의 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北中國에서 七六二粍를 보이고 滿洲、朝鮮東支那海에 퍼지고잇다 滿洲와 朝鮮은 개이고 北風이 세게 불며 氣溫은 어제아침보다 三度乃至 八度가 내렷다 朝鮮海峽九州西部琉球諸島도 개이고 北風이 세며 其他는 비가 내리고 잇다 太平洋은 바람이 상당히 세며 樺太는 흐려잇다

報豫 今夜京城地方은 北西風으로 개이고 明日도 [illegible] 그리고 京畿全區도 同一하다

昨日最高 二三度九
最低 一二度四
今朝最低 一〇度
今日正午 一七度四

補血强壯劑 ロクミン

때는 初秋………
健康恢復의好季節이왓슴니다
더위와 장마로 虛弱하야진 身體의健康을 恢復함에는 健康의要素인 靈藥『ロクミン』을 服用하심에 잇슬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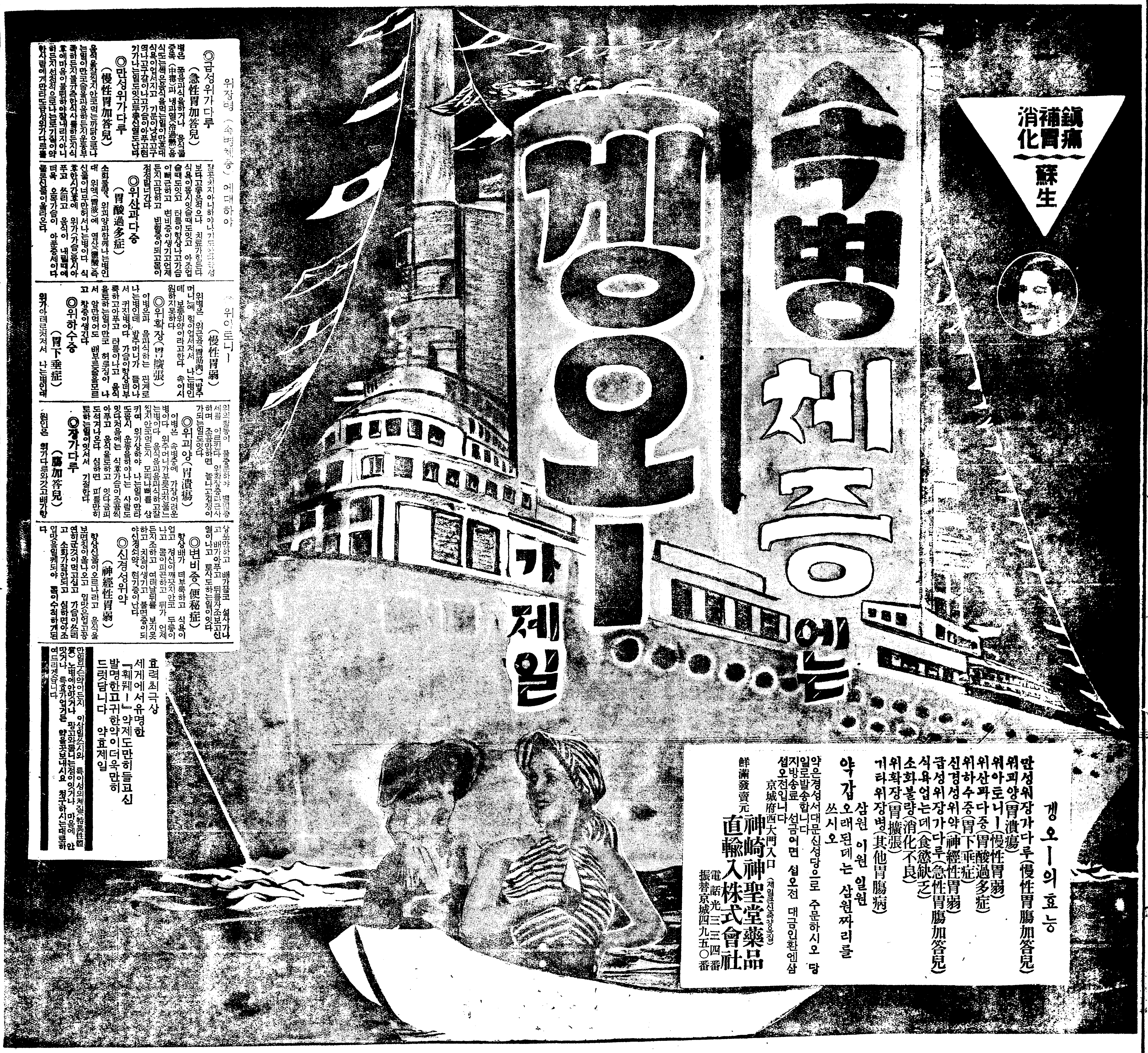
御推奬
醫學博士 金河橙先生
醫學博士 朴昌薰先生
醫學博士 申肯浩先生
醫學博士 任明宰先生
醫學博士 吳一承先生
醫學博士 金東益先生
醫學博士 金重華先生

이러한분은服用하시요
病後衰弱한人
手足厥冷한人
心身虛弱한人
胃氣不足한人
不眠症이有한人
神經衰弱한人
倦怠感이有한人
精力減退한人

效能
▲神經衰弱 ▲早老
▲肺結核 ▲老衰防止
▲肺尖가다루 ▲倦怠感
▲精力減退 ▲盜汗
▲貧血 ▲食慾不振

(藥價) 五〇瓦入 金三圓

發賣元 京城禮智町 天一藥房



위장병(속병체증)에대하야

◎급성위가다루(急性胃加答兒)

병은 폭음과식을하거나 음식물중독(中毒)과 냉과열(冷過熱)음식또는썩은음식을먹는일이만코대식욕이업서지고 기분이낫브고구역나고구갈이나고가슴이아푸고현기가나는일도잇고두통신열도난다

◎만성위가다루(慢性胃加答兒)

음식을잘씹지안코먹는까닭으로나는일이만코술과음료를먹든지운동부족하든지불규측한식사를하든지식후에마음이불편하야할내리지아니하든지선천적으로나는로기질이약한사람에게만타도급성위가다루를 잘곳치지아니하야나가도만타만성보다고통은적으나 치료가힘든다 식욕이줄시잇슬때도잇고 아조업슬때도잇고 트름이항상나고가슴이빼근하고 변비증이생기고언제든지고단하고 빈혈증이되고몸이점점말너간다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소화불량, 위괴양과함께나는병인대 위액(胃液)에 염산(鹽酸)즉신물이너무만히서나는병이다 식후한시간후에 위가(가슴)몹시아푸고 쓰리고 음식이 내릴때에더욱 오목가슴이 아푼증세이다 울로신물이올라온다

◎위아토니ㅣ(慢性胃弱)

위병은 위근육(胃筋肉)의발추머니에 힘이업서저서 나는병인데 보통위약이라고한다 속이시원하지못하다

◎위확장(胃擴張)

이병은과 음과식하는 관계로나는병인데 밥주머니가 들어나서 커진병이다 가슴이항상더부룩하고아푸고 트름이나고 음식을토하는일이만코 허리징이 나서 암만먹어도 배부른줄을모르고 창증이생긴다

◎위하수증(胃下垂症)

위가아래로처저서 나는병인대 위의활동이 불충분하야 별별증세를 이르킨다 위확장증과근사하며 조곰만하면 늘나고집정이가되는일도잇다

◎위괴양(胃潰瘍)

이병은 속병중에 가장어려운병이다 위주머니가부릇고진물느는병이다 음식을과음과식하고잘씹지안코먹든지 모래나뼈를 삼키여 위가상하야 나는일이만타 또몹시 운동을하야나는 사람도잇다 처음에는 식후가슴이조곰씩아푸고 음식을토하고 잇다금피도석겨나온다 심하면 피를만히토하는일이잇서서 기절한다

◎장가다루(腸加答兒)

원인은 위가다루와갓고배가항상포만하고 배가끌코 설사가나고 배가아푸고 뒤를자조보고신열이나고 토사도하는일이잇다

◎변비증(便秘症)

항상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업고 정신이깨끗지안코 두통이나고 몸이피곤하고 뒤가 언제든지조하고 여러날뒤를 보지못하고 치질이생기고 불면증이되야신경쇠약, 현기증이난다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항상신물이오르나리고 음식을보면침이올나오고 입맛은업고공연히군것이먹고십고 가슴이쓰리고 소화가잘안되고 심하면아조입맛을일케되야 몸이수척하게된다

효력최극상
세계에서유명한
『훼훼ㅣ』약제도만히들고신
발명한고귀한약이더욱만히
드럿담니다 약효제일

만일무슨약이든지 이상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 광고와틀니는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게습니다

겡오ㅣ의효능

만성위장가다루(慢性胃腸加答兒)
위괴양(胃潰瘍)
위아토니ㅣ(慢性胃弱)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위하수증(胃下垂症)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급성위장가다루(急性胃腸加答兒)
식욕업는데(食慾缺乏)
소화불량(消化不良)
위확장(胃擴張)
기타위장병(其他胃腸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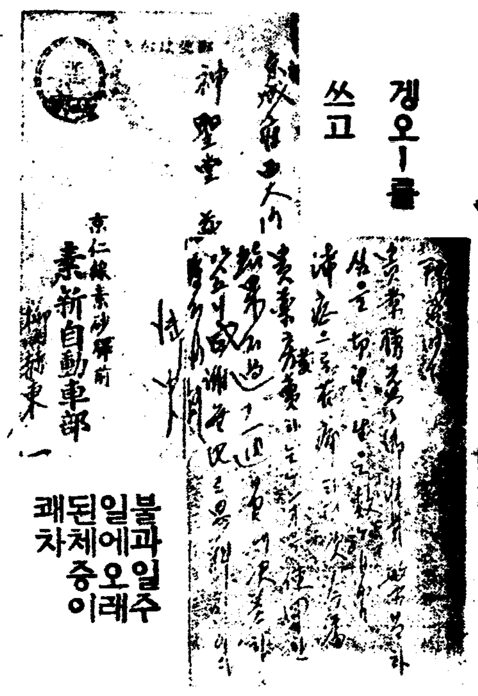
약갑 삼원 이원 일원
오래된데는 삼원짜리를 쓰시오

약은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발송합니다 지방송료 선금이면 섭오전 대금인환엔삼섭오전입니다

京城府西大門入口 (제일은신옥양옥집)
神崎神聖堂藥品
鮮滿發賣元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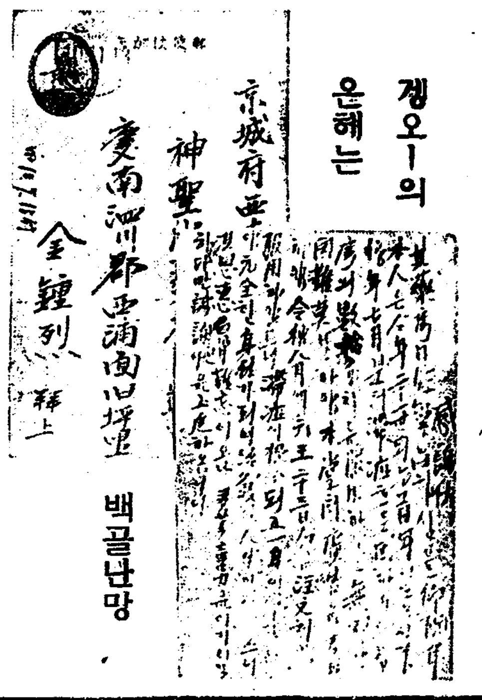
하로에천리길을번
개갓치달니는기차
(汽車)는엇지하야이갓
치기운차게다르는가?
말할것업시기관차
(機關車)의힘이다
사람도소화기관인
위장이(消化機關 胃腸)
신체모든활동의원
동력(原動力)이되는것
이다, 위장이약하고
너는진수성찬도
뜻에업고 몸이쇠약
하야만병의근본이
되는것이다 몸이약
하면신병이잇고야
세상것이다ㅣ낫것
이면무엇하며사회
상에서무슨활동
을할수잇스리오
신외무물이오무병이
장자라무엇보다도튼
튼한위장이건강에제
일이다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분은약중
에제일조흔『겡오ㅣ』
를쓰시오 몸을보하고
소화가잘되고체증을
풀고위장을다시소생
식히는고명한약입
니다 답지하는이감
사장이사실로위대
(偉大)한약효를증
명(證明)함니다

겡오ㅣ를 쓰고


京仁線素砂驛前 素新自動車部
神聖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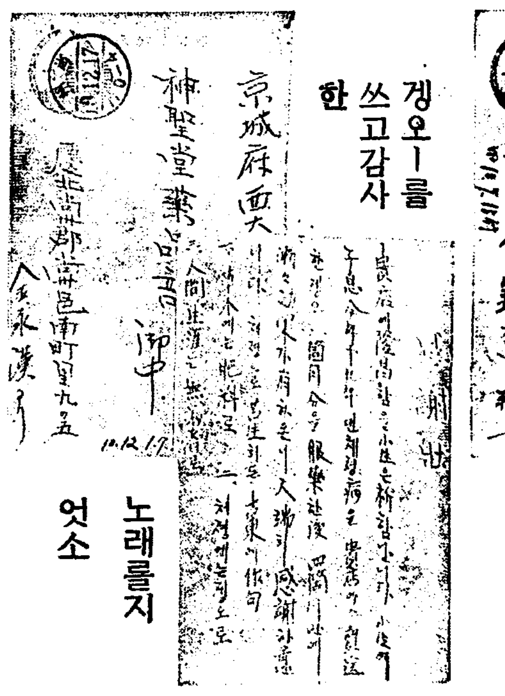
불과일주일에오래된체증이쾌차

겡오ㅣ의 은혜는


京城府西大門 神聖堂
慶南泗川郡 金鍾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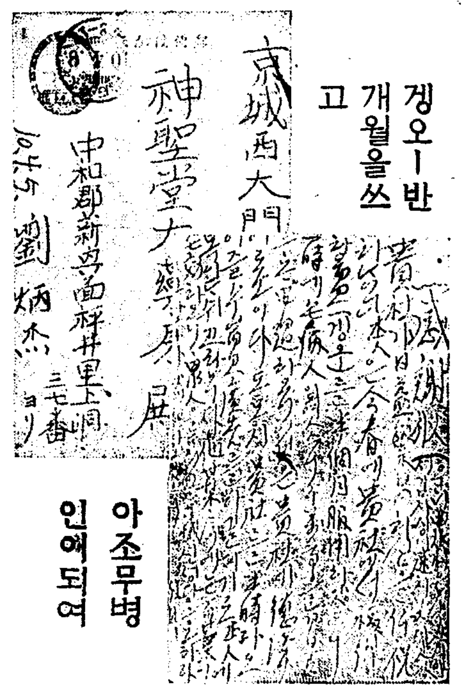
백골난망

겡오ㅣ를 쓰고감사한


京城府西大門 神聖堂藥品部
金永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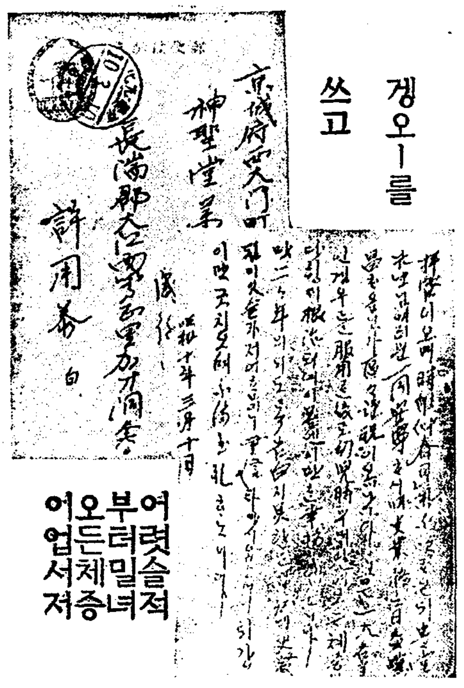
노래를지엇소

겡오ㅣ반개월을쓰고


京城西大門 神聖堂大藥房
中和郡 劉炳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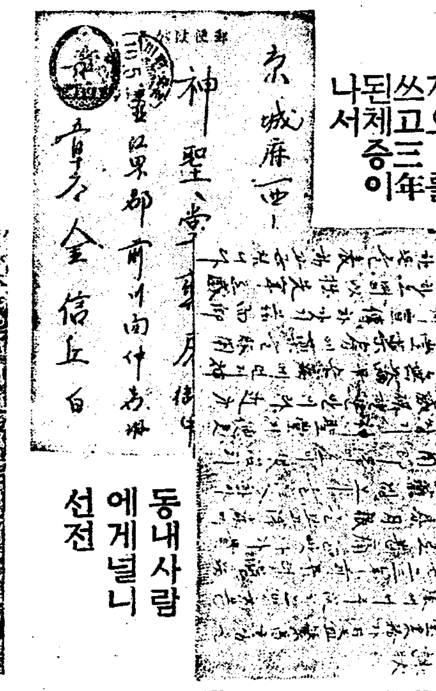
아조무병인에되여

겡오ㅣ를 쓰고


京城府西大門 神聖堂
長湍郡 許周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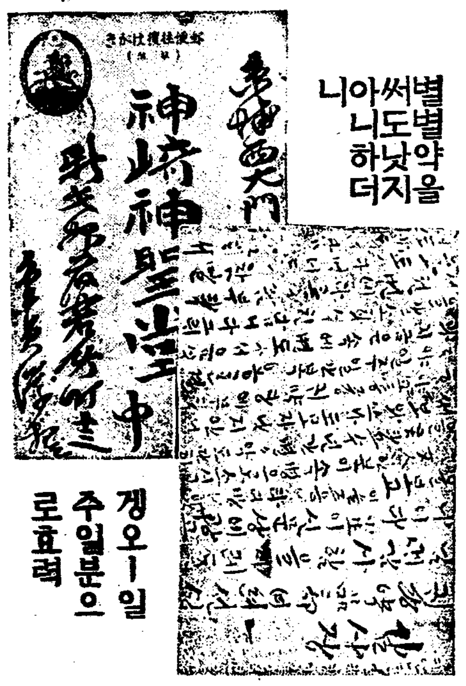
여렷슬적부터밀녀오든체증어업서저

겡오ㅣ를 쓰고三年된체증이 나서


京城府西大門 神聖堂
金信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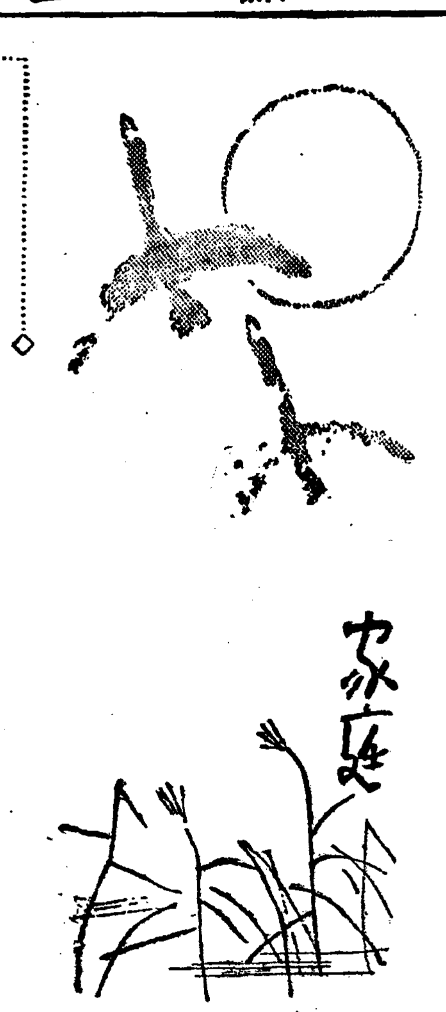
동내사람에게널니선전

별별약을써도낫지아니하더니


神崎神聖堂

겡오ㅣ일주일분으로효력

(향기!)



버섯은 요리의시 영양분도 훌륭타

그중에는송이와참나무버섯 이한철미각을독차지

향기로운 버섯이야말로 가을미각(味覺)의 녀왕입니다。차마 입으로 너키 아까울만큼 청고한풍미가 잇고 고상한 품격이 가추이어 잇습니다。그런데 흔히들 버섯종류는 맛으로나 먹지 아모런 영양분도 업다고 보지들 안습니까? 먹는다는것은 아모래도 영양본위인데 그아니 한옥의 티오니까? 그러나 천만에 그렇라 만무합니다。버섯종류에도 예상이상으로 훌륭한 영양분이들어 잇습니다。버섯에도 여러가지가 잇지만은 그중에서 송이와 참나무버섯만을 예로 들겟습니다。그외에 싸리버섯、노루버섯등속도 물논 다 제대로의 상당한 자양분을 포함하고 잇습니다。

송이에는 어떠어떠한 성분(成分)이 잇느냐 하면

수분(水分)	八七·七
단백질(蛋白質)	一·九
지방(脂肪)	○·三四
함수탄소(含水炭素)	六·二○
섬유(纖維)	一·五
무긔질(無機質)	○·八二

또 참나무버섯에는 어떠어떠한 성분이 잇느냐 하면

수 분	七○·三七
담백질	七·五
지 방	二·四七
무긔질	五·二二

이러케 분석하야 노코 보니 수분이 제일 만코 영양분이 아조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적은 영양분에 실로 훌륭한 것들이 들어 잇습니다。영양분의 가치는 그분량의 다과에도 따르겟지요만은 그 품질이 귀한 것이냐 아니냐 조흔것이냐 아니냐에도 따롭니다。

×

그러면 어떤 무엇이 들엇습니까? 송이를 좀더 자세히 분석하야 보오리까?

(一) 유긔린(有機燐)과함께 무긔린(無機燐)。무긔린은 우리의 몸에 여간 필요한것이 아닙니다。얼마든 못된다고 하더라도 그러케 귀한것이 들어 잇습니다。

(二) 망간。어린아히들이필 [illegible] 이 [illegible] 역시 [illegible] 서 안 될 물건입니다。이역시 만치는 안하도 들어 잇습니다。

(三) 카리(加里)와린산(燐酸) 카리라든지 린산이라든지 다조금씩 잇습니다。그 이외에 회분(灰分)도 잇습니다。

물론 주식물(主食物)로서는 송이가 참예되지 안치만 부식물로서는 아조 조흡니다 어떤 다른것하고 비교하더라도 자체의 특색을 조곰도 일치안할것입니다。

×

그러고 이라든지 뼈가되는데는 비타민띄가 필요하고 또『엘고스테린』이라는것이 비타민 띄로 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바가 아닙니까? 단지『엘고스테린』그것을 일광에 쪼여야만 비타민 띄로 되기때문에 일광에 쪼이지 안한 것은 소용이 업다고들 아지 안하얏습니까? 그러나 먹고나서 우리의 몸을 일광에 쪼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명되엇습니다。그것은 참말로 아조 재미잇는 사실입니다。그런데 송이에나 참나무버섯에나 그러한『엘고스테린』이 들어 잇습니다。그역시 그것들의 영양가치를 도드는 일에 벗어 나지 안습니다。

요통과수족이찬증

問 금년이십사세의 청년인대 수년전부터 얼굴비치 노래서마치아편중독자라고도 할만치되얏습니다 건강치못하고 요통도심합니다。수족도어름장가티 참니다 아마양긔가 부족하야 그런지요 선생님께아뢰오니 병명과 치료법을 가라처주시기바랍니다

答 안색이조치못하고 수족이 차며요통이심한증세의 원인은여러가지를생각할수잇습니다 위선 대변을 검사하야 긔생충의유무를보고 소변을검사하여 담백뇨(蛋白尿)의유무를 아러야 치료법도 말슴하게되겟습니다 그런고로이와가티한번병원에가시여 검사하야보게하십시요 (醫學博士 朴 秉來)

숫치질을고치려면

問 금년이십구세의남자인대 사개월전부터 숫치질이발생하얏기로한약을사용한즉 다소간효과가 잇는듯하옵더니 아개월전부터는 홍문이축축하며 대변볼때마다피가무터나오고 변비가심합니다 엇지하면낫겟습니까(義州一讀者)

答 숫치질이라하는것은 외치질(外痔核)을말하는것이가요 홍문부가습하고 대변시에 출혈함을보면열상(裂傷)이생한것입니다 홍문에 너케하시고 한면으로는대변을 매일보도록 대황말、파키사도ー롯、미레바ー론등의 약제를적당하게 복용하야보십시요이상과가티하야도낫지안하면수술이필요합니다(醫學博士 朴秉來)

◆……昨日의 運動會……上은 梨花女子普通學校、下는 [illegible]仁普通學校

絢爛한天分의爭覇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豫選十月廿一日、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 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ー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ー第一樂章ー「모잘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ー第一樂章ー「비오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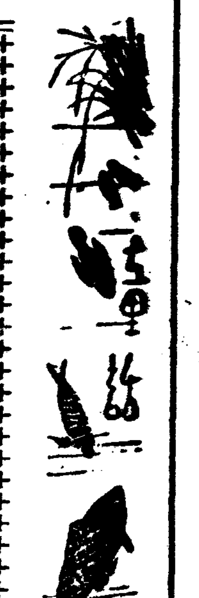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상품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덧세 ②

徐……幼……亭

×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illegible]으로 기특한 일을 보앗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건너마을 배서방이란 어른이 우리집에를 왓습니다。무슨 일로 왓는지 배서방은 우리 큰언니하고 사랑마루에 안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잇는데 언제 따라왓는지 배서방네 누렁이가 떡 당기운데 쭈그리고 안젓습니다。

이누렁이는 크고 살찌고아주 사납게 생긴개올시다 고개를 번듯처들고 안저서무엇을 노려보는 양을보면 마치 사자갓기도 합니다。

우리동리에서 『배서방네 누렁이』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업지오 다들밧칠 잘하고 차[illegible]고 산뙈지 노루 이런 즘생을 여러마리나 잡엇답니다。그리고 성질이아주 사나워서 때때로 사람을 무러서 말성을 일으키는 개올시다。

원마을개들은 어느놈이라면 기죽을 못펴고 벌벌떱니다。여러개들이 떼를지어서 조아라고 꼬리를 치면서 마을안길을 달려가다가도 누렁이를 보기만하면 모다 옷독 서면서 한발족내딧지못하고 그대로서서 볼볼떠는것을 나도 여러번 보앗습니다。

으슥한 밤중에 건너마을에서 배서방네 누렁이가 컹컹 지즈면 원마을과 압뒷산이 쩡쩡 울립니다。

이 누렁이가 우리마당에와서 안젓스니 우리 바둑이는 어찌 되겟습니까? 『마루밋 구멍에가 업드려서 떨고잇스려니』하고 돌려보는데 별안간 부엌문이열리면서 『으르르릉』소리가 나드니 우리바둑이가 왈칵 뛰어나와서 마당한가운데 버틔고선 누렁이 아프로 달려가는군요。가서는 그아페가 떡 버티고서면서

『너 왜 우리집엘 왓서?』

하는듯이 노려봅니다。

누렁이 에게다 바둑이를대노으니 마치 고양이 압에다가 쥐를 세워노흔것갓습니다。

누렁이는 아조개소롭고 하잘것업다는듯이

『요것봐라! 요놈에 려ㅅ새를 하는셈이냐? 어서라공연하 다친다 저리가라』

하는것 처럼 한발도 움겨딧지 안코 주둥이로만 혹 떠미러 버립니다 바둑이는방울처럼 떼구르르 거꾸로한번을 되굴르더니 다시 빨닥이러서서 누렁이 에게로 뎀벼들엇습니다。

쪼그만놈이 기를 쓰고 뎀벼들어서 물고 할키고 껴안고 되굴르고 하지만 누렁이는 힘도 안드리고 바둑이 목덜미를 물어서땅바닥에다 콱 내붓치고는 압발로 다짓눌르고서서 물어뜻습니다。

이때에 내뒤에서『히익!』소리가나드니 항상 바둑이하구 쌈싸우든 고양이가 총알처럼 이두놈을 향하야달려갑니다。나는 속으로ーー『저런 짜쟁이! 이런때에 바둑이에게 분푸리를 할려는 게로구나』하엿드니 웬걸요! 고양이는 바둑이를 뒷고서서 물어뜻는 누렁이에게로 뎀벼들엇습니다。후닥아서 누렁이 뒷덜미를 깨물고 흔들며 늘어집니다。누렁이가고개를 휘둘르려면 불티처럼튀어다라낫다가는 다시 뛰어와서 물어뜻고 합니다。

이러는 틈에 미려 눌렷든바둑이 이러낫습니다。누렁이가 고양이 에게로 돌려면 바둑이가물고 바둑이에로 뎀비면 [illegible] 고양이가 와서 물어뜻고……그무서운 누렁이를 가운데두고 두놈이혜내는 양이 참으로 용하지안습니까? 제아모리 원마을에서 행내든누렁이라도 할수업시 한참을 물어 뜻기드니 나중에는조거더라나버렷습니다。

『어어 고것들! 조것들이라고쉽게 볼게아니로군』

『아아 참、그놈들 기특한데요!』

『사람보다도 낫구려』

싸우는것을 보고잇든 우리언니、배서방、나、집안사람들이 모다들 탄복을 햇습니다。속은 어떠케 밉정한것들이 웨 그러케 밤낫으로 저희끼리 싸우기만하는지오? 아마 저희끼리는 무슨 작을 까닭이 잇서서 그런가보아요。

나는 그 여허 이두놈들을 싸우지안코 잘놀게 만들고 말겟습니다。한집안에 살면서 싸우지 안코 저희끼리 오순 도순 잘놀면 보기에도 좀 조켓서요?

인제 우리 바둑이와 고양이가 싸우지안코 잘 놀게되면 그때에 그 기쁜소식을 여러분께 도연려들이지오。 (끗)

第3回 中國料理講習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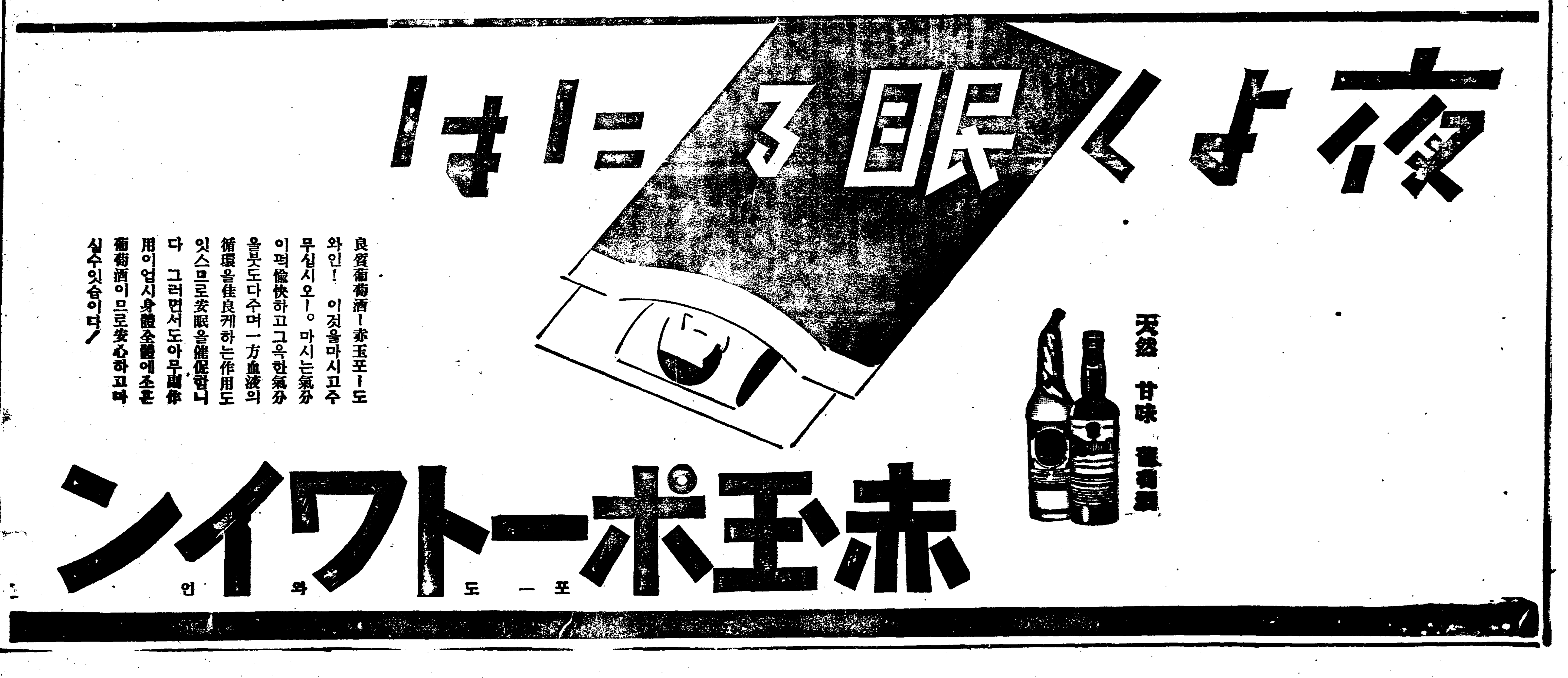
時日 十月五日부터同十日까지 (午後一時부터四時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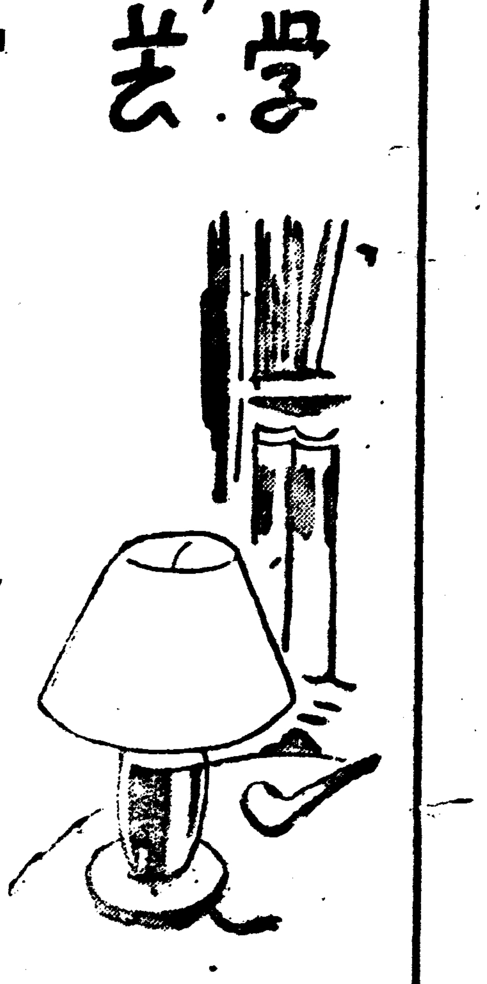
場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館 ([illegible])

講師 鄭順媛 女史 會費壹圓五十錢

主催 京城女子基督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네오·휴마니즘』論
—그根本的性格과創造의精神—

⑥ 金午星

法則的思惟는 理性 또는 社會의 法則의 아페서 人間의 絶對服從을 命令한다。그러나 쉐스토프의 말과가티 죽엄이란事實이 『二二는四』와가티 不變의自然法則이라고 하여서 우리는죽엄에도

……服……從해야할것인가? 人間의 生存은 오히려死란 自然法則으로부터 生을 擁護하려는 決鬪가 아닐가? 나종에는 죽엄이란 法則아페 慘敗하드라도 慘敗할 그때까지死란 法則에서 生을 擁護하려는것이 人間이라할것이다。法則은 確實히 잇다。더구나 法則的思惟는 어느意味에서는 人間에게 잇서 不可缺의것이다。하나 그러타고 法則이 絶對的인것은 아니다。人間을法則의 아페서 除外시키는것은 決코正當한일이 아니다。人間은 法則의아페 屈服하며 束縛되며 自己를 喪失할것이 아니라 法則을利用하며 法則과 싸워 이기며 法則의우에 人間의 原理를 强要하지 안호면 안될것이다。今日 네오、휴맨이즘은 이러한理性의法則 客觀的法則에 依하야 屈從되며 束縛되며 喪失되여잇는 人間을奪還하지 안호면안된다。그리하야 人間의 能動的實踐에 依하야 現代人의 온갓思惟를 文化를 再建하지 안호면 안된다。네오、휴맨이즘에

……立……脚하는 文化는어대까지나 人間의 自由發展을 確保하는것이 아니면안될것이다 모든 必然의 暴威에서 人間의自由를奪還하라!이것이 네오·휴맨이즘의 모-토일것이다。

×

그러면 네오·휴맨이즘은 먼저 人間을 어떠케 보아야할것인가? 휴맨이즘은 十六世紀의文藝復興期에 잇서는 徹頭徹尾 個人的人間 卽個性을 探求하며 宣揚하는것이엿다。神的權威및 敎權에 蹂躪하엿스며 喪失되엿든 個性을 奪還하는것이 휴맨이즘의 目標이엿다。그들은 애써 人間이 元來 個性的인것 社會란 個性들의 自由意志에 依하야 構成한것임을 主張하엿다。그것은 神的意志를 憑藉하는 封建階級의 支配的 이데오로기-를 對抗하는데는 無上의 武器이엿든것이다 하나 이러한 個人主義的 휴맨이즘은 우에서 본바와가티 法則的 思惟미테서 自己喪失을 招致하게 되엿다。그것은 個人의 權利를

……尊……重하는 近代의 自由競爭的 社會構造가 必然으로 獨占的 事實에로 自己를 轉化시켜 온갓 個性의 自由意志를 束縛하는 現實과伴隨하는 文化的事實인것이다。絶對的인 個人主義는 오히려 絶對的인 個性의 喪失을 보혀주엇다。그러므로 네오、휴맨이즘은個人主義的이여서는 안된다。네오·휴맨이즘을 主張하는 사람들 가운데 無反省的으로 個性만을 問題삼는것은 警戒할일인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個人主義를벗어나려할때 그對岸에 나라나는것은 人間을 集團的 社會的인것으로 보는 온갓見解이다。그들은 人間을 한개의 類的存在로서 생각한다。『人間은 그가生存을爲하야 어떤生産에 參加하자말자 自己의 意志와는 獨立한關係를 맷는다』이러한 關係 즉社會的關係 그것이人間이란것이다 人間은 社會的關係를 떠나 생각할수업다。그의言語

……表……象 온갓行爲는모다 社會的關係의 所産이며 거行爲는 모다이 社會的關係의 所産이며 거긔서 規定된것이라는것이 集團的 人間觀의 主張이다。그러나 集團 또는 社會的關係가 絶對的일때 거긔에는 우에서 본바와가튼 法則이 支配될뿐 人間의 能動的 機能은 생각할수 업는것이다。거긔에는 社會的法則이 시키는 대로 움즉이는 로봇트가 잇슬뿐이요 人間的活動은 생각할수 업는것이다。이러한 集團的人間觀이 또한個人主義와 한가지로 네오·휴맨이즘을 構成할수는 업는것이다。

네오·휴맨이즘의 困難은 여긔에 잇다。個人主義와 集團主義가 한가지로 不可能하다면 네오·휴맨이즘은 第三의 새로운人間觀을 樹立하지 안호면 안될것이다。

그것은 個性과 社會 卽 特殊와 全般을 對立을 通하야 統一하는 辨證法的 立場에서만 可能할것이다。個性과 社會는 現象으로서는 對立되여 잇다。하나 이對立이 絶對的이라면

……個……性은 아모리 社會에 對하야 自己의 機能을 發揮할수 업슬것이요 社會는 自己가 個性으로부터 形成할수 업슬것이다。그러면 個性과 社會는 어떠한形式으로 對立하면서 다統一되는것인가?

一危二篤一 ①

李箱

○禁制

내가치든개(狗)는튼튼하대서모조리實驗動物로供養되고그中에서비타민E를지닌개(狗)는學究의未及과生物다운嗅覺으로해서博士에게흠씬어더맛는다하고십흔말을개짓듯배아터노튼歲月은숨엇다。醫科大學허전한마당에우뚝서서나는必死로禁制를알는(患)다。論文에出席한억울한髑髏에는千古에氏名이업는法이다。

○追求

안해를즐겁게할條件들이闖入하지못하도록나는窓戶를닷고밤낫으로꿈자리가사나워서나는가위를눌린다어둠속에서무슨내음새의꼬리를逮捕하야端緖로내집내未踏의痕跡을追求한다。안해는外出에서도라오면房에들어서기전에洗手를한다。닮아온여러벌表情을벗어버리는醜行이다。나는드되어한조각毒한비누를發見하고그것을내虛僞뒤에다살작감춰버렷다。그리고이번꿈자리를豫期한다。

○沈殁

죽고싶흔마음이칼을찻는다。칼은날이접혀서펴지지안으니날을怒號하는焦燥가絶壁에끈치려든다。억찌로이것을안에떼밀어노코또懇曲히참으면어느결에날이어듸를건드렷나보다。內出血이뻑뻑해온다。그러나皮膚에傷차기를어들길이업스니惡靈나갈門이업다。가친自殊로하야體重은점점무겁다。

現代英詩의動向
여러가지流派와그作家들

(四) 林學洙

이로써 그의手法의 非凡함을 알것이다。일즉이 女永矮氏가 루이스의文學論을 紹介하야『그는 浮想的情感에 耽溺하지아니하고 無成英文學에對한 祖先的情을가지고 新鮮文學을 建設하라한다。輕燥浮薄한 急進派가아니다。堅實한 漸進的 方法으로 實果를따라한다。』하얏거니와 事實文學의 立場으로보아 文學을 하면서 文學을 忘却한 (讀者는 政治的讀者보다도 더 만히 文學的讀者임을 그들은 모르는貌樣)宣傳詩 製作者와는 그들의 價値가 判異하다。新興의 英詩人들은 어데까지던지 讀者와 가티苦惱하고 讀者와가티 探求하고讀者와가티 즐기려한다 이러한方法으로 그들은暗示하고 讀者로하여금 反省할 餘裕를준다。무리대고 회차리로 두드려갈겨繁昌시킬려고는 하지안는다。이러한 中庸의文學 即 知的으로 發達한 現代人에 가장 妥當하다고 할수잇는 文學을 建設할수 잇게한 그들의 祖國의 社會情勢야말로 露國이나 佛國의 그것에 比하야 幸福이라 아니할수업다。英國에 超積極分子가나오지안흠은 무엇보다도 그러케苦難을 맙어보지못한 그들의社會情勢에 依함이아니일까?끄트로루이스의 택니的 特徵은 文章의壓縮이람을 이저서는 안된다。

(3)스테펜·스펜더

以上의 二人과 竝稱되는詩人 一九三三年에 詩集을 냇섯는데 그後에 또냇는지는 모르겟다。一九三五年五月號의 『런던머큐리』에 그의 詩三篇이잇섯는데 다른사람의 作品보다는 알어보기도쉬웟고 抒情味가잇다。그가失業者의 苦痛을 가끔題材로한다는것은 널리 알려저잇는 事實이다。『밤에』의 끗節을 紹介하건대

번서 모다가 너무느젓다。
바람이분다。내흠로 暗黑속에
누어잇는곳에
機關들은 밤새도록 덜그덕어
리고 울려간다。
만흔것들이 희희 다려난다。
나의사랑하든 다만멧사람
나와親愛한 因緣을가진 다만멧사
람은
모다 모다 代辯者를 喝采하
면서
추렴과가티 고요히느려서 그
들同志들의여페 머물럿다。
沈默,決議가되엿다、굿센죽엄을
하기로。

(4)미카엘로버-츠

스펜더는 今年二十六歲 今春에 그의詩集이 出版되엿스나 나는아직보지못하얏다。그러나 아페서 말한그의『엘리엇論』으로보아서도 아는것은 그가個人의完成을 尊重하며 破壞的이 아니고 建設的이라는것이다。

今年六月號의『머-큐리』紙에서 로버츠의詩는 오-든이나 루이스의詩와 흡사하고 비스나 現社會를 考察하는方法에 잇서서도 또한 行動의 必然을 늣기는點에 잇서서도 그들과가트나 그는 自然을 가지 그들과 다른길을 取하야 그의詩集中에서 이러한 句節을 紹介하얏다。그것을 要約하건대『고요한날은 도라올게다。流浪者와 挑金鑛과 라벤다와 한잎(葉)도한입 점점 도라오는날은 고요한 心線 單純한마음으로 다시 도라올게다。……微波까스와 바서진 街路에서 롱당거리는……죽엄과 바람에 날려열려진 도어를 通하야 그들은 도라올게다。』하엿다。그는 또今春四月號의 誌上에 發表된 로버-츠의『顚落한登山家들』을 稱讚하고 그가 想像을 取扱함에잇서서는 오-든과 루이스보다 優秀하다하얏다。이『顚落한 登山家』은 나도 읽을機會를 가저섯기에 일즉 敬하고잇던 作品이엿다。거기에는 精悍한 先導者와 落伍者와 山頂의變化無雙한 大膽한 描寫가잇는 二百行에가까운 詩로서 그雄渾한 筆致와 힘찬 想像으로서 近日의 快作이엿다。

白頭山探險의 科學的成果
白頭山의歷史的考察
史話와傳說에서보이는그全貌

(四) 司空桓

그러나 이譯官中에는 다행히 金慶門이라는 硬骨人이잇서서 穆克登에게 不斷의 叱責과 威脅을 當해면서도 목숨을 내노코 끗까지 抗辯하야 능히國土數百里를 保守하게되엿다한다。(通文館志와洪世泰白頭山記參照)

(二寸二分)

大淸
烏喇總管穆克登奉
旨査邊至此審視西爲鴨綠東爲土
門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筆帖式蘇爾昌通官二哥
朝鮮軍官 李義復 趙台相
差使官 許樑 朴道常
通官 金應瀗 金慶門

(一尺八寸三分)
(二尺三寸一分)

【라】勘界問題 韓淸國境問題란 要하건대 間島所屬權 問題이요 間島問題란것은 豆滿江 土門江의 異同問題요 이問題의 張本은 定界碑文中에 『東爲土門』이란 句의 解釋이엿다 淸朝에서 일즉 滿洲를 禁封地로하야 滿洲以外의 居住를 禁하고 더욱 白頭山을 中心으로한 豆滿江流域을 空曠케하야 아모도入居하지못하게하엿스나 人蔘 鹿茸 毛物의 特産地요 農作의適好地라 우리 移民이 몰미드시 마을 길어서 越江起墾하야 間島는 變土의 뜻을 가지게 되엿다。權力을 背景으로한 山東移民이 모든 抑壓 特히 歸化强制가 끈칠새업서 조선人에게 더하엿다 때는 壬午에 淸吉林將軍 銘安 欽差大臣 吳大澂이 土門江 東北岸荒地를 正式으로 開放하야 開墾에 着手하라하다가 該地에 多數朝鮮人이 居住墾作함을 보고 저의國民과 同視하겟다하는대 朝鮮서는 차라리 刷還하겟다고 主張하야 원이거북하야지니 安着하든居民들이 비로소 國境觀念이 喚起되야 사람을보내여 定界碑를 査驗하고 그實情을 官府에 報하엿다、癸未에 西北經略使魚允中이 慶源에갓다가 越墾民의哀訴를듯고 鍾城人金禹軾과 伴行한 吳元貞으로하여금 五六兩月에 두번 白頭山을 踏査케하야 定界碑와 土門江源을 査得하고 茂山府鄕任 李琮呂와 出身權興祚로 碑文을 定刊케한後 間島가 當然朝鮮의 所有인것과 豆滿江越墾民을 刷還케하라고 要求함이 全然無理임을力說하야 兩國間의 國境爭議는 다시 擾亂되어엿든 것이다 그리하야 乙酉의 勘界使 李重夏(當時安邊府使)從事官 趙昌植이 淸使德玉 賈元桂 秦瑛等과 會寧府에 會同하야 談辦을 開始하니 淸人은 中國使의 貧窮한文書로써 確證이라하고 우리는實際가 第一임을 主張하야 마음내 積雪을 밟고 한가지 水源을 探索하기로하야 맛踏驗할 淸人이 또한 意外의 感을가저서 踏塞하야 이번은 査踏만이라하고 도라갓다 勘界談辦은丁亥、戊子에도行하야 또한 李重夏가 그任에 當하엿스나 다만 簽을어지못하고 이후한참은 問題가 그만저만 하다가 乙未以後 居民이 이問題의 再起를 要請하야 말지아니하고 丁酉에 咸北觀察使 趙存禹는 白頭 土門豆滿의 地形을 精査하야 兩次勘界의 經緯를 解說하엿고 光武四年에 我國이 北淸事件을타 間島를 占領함에 居民의 輕遞을 생각함이 더욱간절함으로 光武六年에 政府에서 李範允을 派遣하야 人民을 派遣하게하고 그 翌年에 李範允을 北邊間島管理에 任命하엿다 範允은 私砲兵을 養成하고 租稅를 徵收하야 淸官과의 衝突이 不絶하고 日露風雲이 일어나매 勘界爭議가 中止되엿다가 乙巳年日韓保護條約成立에 따라 朝鮮外交를 日本에委任하게되매 이國境問題는드되여 日淸間의 外交問題로되엿다 丁未八月二十三日로부터 統監府의 出張所를 間島龍井村에 設置하고、韓國內部로서 派遣한 官吏와 日本憲兵警官들이 協力하야 새行政을 시작하며 一方勘界上에 必要한 調査와 研究를 힘써서 韓國의 領土란 前提下에 모든施設을行하며 淸國에서도 여기激動되여 새로 吉林邊公署를두고 多數軍隊와 官吏를 보내서 서로對抗케하야 國境問題는 더욱紛糾를 더하게되엿다 그리하다가 戊申에 南滿鐵道의 安奉線을 改築함에 際하야 日淸間紛糾가 남에 間島問題는 고만變胜되야 同年九月四日 日淸協約이 締結되고 統監府間島出張所도 撤廢되얏다。

總督府 地籍調査所 山城不二麿氏는 『鑛石의白頭山』이란 論文一節에

『定界碑ノ餘リニ馬鹿ニセル位置ヲ選ビシモノナリ コレデハ折角ノ山モ天池モ全ク支那ノモノナリ但シ學術ニハ國境ナシ』라하엿고 또 東亞博士 和田雄治氏는 『그白頭山의氣象』이란 論文一節에 『然ルニ今回實地ヲ踏査スルニ石乙水ノ位置甚ダ不明ニシテ『東亞同文會報告』中ノ地圖ニヨレバ紅土水ハ圓地ヨリ發シ石乙水ハ甑山ト北甑山ノ中間ヨリ流レ『間島產業調査書』ニ依レバ同水ハ虛項峰小白山間ヲ流ルルガ如クニ記セリ、然レドモ神武城無頭峰間ヲ經過スル一溪谷アリ流水潤澤ニシテ圖們江ノ水源タルガ如シ 夫レ斯ノ如ク位置不明ナル石乙水ヲ以テ國境トナスハ將來ニ於テ問題ヲ惹起スベキコト明白ナリ』라고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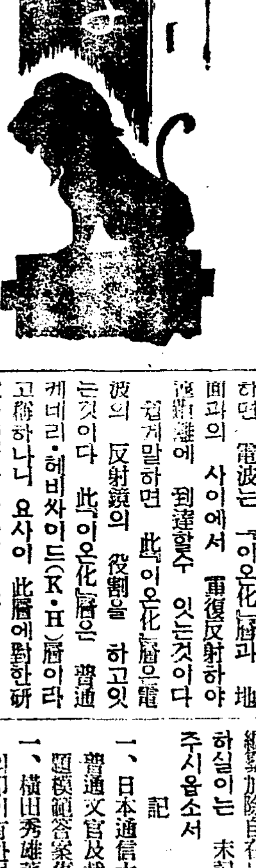
五、白頭山에關한 文獻略抄

【가】白頭山은 古來東西諸族의 興祥之靈峨

大定十二年封長白山神、爲興國靈應王、卽其山北建廟宇、明昌間、復册爲開天弘聖帝金史世紀

先世發祥于長白山(淸太祖實錄)

天遣皇淸、發祥大東、山曰長白江曰混同、綿隣盛嵐、福華鍾靈山實有靈、闢門揚、三天女者、降而浴池、神鵲含果、呑以娠中畢之姓名毋系後宗、有取水入、見茲異徵、交手昇輿、推爲主國三姓定亂、郭多城墟、蠻鬱滿洲開基肇宗、光爲商至、帝武周家聖必有髮、異哉同風。(淸乾隆帝詩)



—科學의수수꺽기—
델린저現象檢討
五十四日週期說도崩壞되나?

③ 延專敎授 崔奎南

爆發과荷電粒子

太陽面우에도 말하얏거니와 太陽面上 黑點內에 溫度는 亦是 매우 高溫이다 그가운데서 爆發이起하면 原子가 破壞되는 同時에 荷電粒子(Electric Particle)가 非常한 高速度로 飛出하게되는것을 容易히 想像할수가잇다。

이러한 種類의 爆發은 英國學者『밀ㄴ』博士가 一九二六年에 太陽彩層(太陽光球面을 包圍하고잇는 氣體層)에 對한 理論을 提出할때에도 이미 假定하얏든것으로 이것이 無電障碍에 原因이 된다는것은 上述한 諸事實로 明白하다고 밋는다 그런데 此爆發時에 副産物로 飛出하는 荷電粒子가 地球까지 到着하라면 太陽—地球間이 非常한 遠距離임으로 黑點이 地球에對하야 正面의 位置에 存在하여야 할것이다 卽黑點이 太陽面中央에 올때에 爆發이起하는機會라야 荷電粒子가 地球까지 到達하기가 可能하다고 미더진다。이러케 飛來하는 粒子가電子인지 水素原子核인지 中性粒子인지 或은 또 다른 粒子인지는 直接觀測해보기前에는 斷言키는 不能하나 左右間 此等의 荷電粒子로因하야 地球大氣上層에『이온化』(Ionization)卽電離現象이起하고 此로因하야 無電障碍의 現象이 起하는것이라고미더진다 『이온化』라는것은 中和狀態에잇든 原子가 外界의衝動等으로 二個의 陰陽電氣粒子로電離되는 現象으로 아라두면조타 向者 어떤學者는 新聞紙上에『太陽面爆發로因하야 噴出된水素깨쓰가 紫外線을 吸收하고吸收되紫外線이 地球에 到達됨으로 此無電障害의 現象이이러나는것이라고』發表한일도有하나 여러가지 實測事實에 비추어보아 信用할만한 根據라고하기는어렵다

케네리·헤비싸이드(K·H)層

短波無電이 地球를 回轉하야 어떤곳에든지 到達키 可能하다는것은 地球大氣上層에『이온化』된層이有하야 電波가 此層에反射되는 理由라고밋는다 다시말하면 電波는『이온化』層과 地面과의 사이에서 重復反射하야 遠距離에 到達할수 잇는것이다 거기말하면 此이온化層은電波의 反射鏡의 役割을 하고잇는것이다 此『이온化』層은 普通 케네리·헤비싸이드(K·H)層이라고稱하나니 요사이 此層에對한研究가盛行하고잇다 去六月十九日北海道北見地方에起한 皆旣日食때에도日本全國의天文學者는勿論 世界各國天文學者들이 雲集하야 觀測에從事할때에 日本遞信省電氣實驗所班은 特히 此『케네리·헤비싸이드』層에 對한研究를 目的하고 北海道旭川市에 遠征한일도잇다 이實驗班이 얼마만한收穫이잇섯는지?만흔希望을嘱하여둔다 이와가티 此氣層에對하야 만흔研究와 學說이 流行하고잇는모양인대 其中에 가장미들만한學說은 此層은 太陽으로부터오는 紫外線으로因하야『이온化』現象이(Iongation)起함으로 생기는氣層이라고한다 最初에 地上百粁假量의高度에 此『이온』化層이存在한것을 電波實驗으로 發見하엿고其後에 上空二百粁乃至三百粁程度의노피에 第二層의存在를發見하엿다 前者를E層 後者를F層이라고 命名하엿다

一漢詩一

『蓮』=押心 桐岡考選

佳作三之十 東華邑讓安洞四二八 朴基汝

柄柄亭亭不作林
依如君子保中心
六郞雖貌遜遠劣
二隗原姿效更深
品絶群芳難可近
香淸凡臭莫能侵
較看陶菊誰高下
愛說伊人亦愛吟

新刊紹介

▲慶北佛敎 第四號(月刊)發行所大邱府德山町二六一 慶北佛敎協會 定價一部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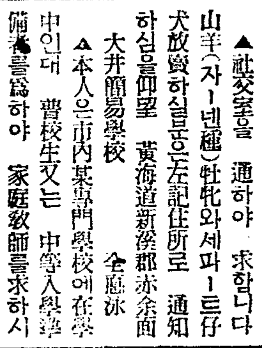
▲朝鮮映畵 第一輯(內容)朝鮮各方面人士의 映畵界에 提言=具滋玉外諸氏 朝鮮映畵企業論=朝鮮映畵의生命線 映畵의文化的使命 朝鮮映畵監督書心談=羅雲奎外諸氏 尖端女性映畵座談會 朝鮮映畵製作에對한諸氏의建議=韓仁澤外諸氏 조선되스런歡迎座談會記事特輯 映畵隨筆 映畵小說 等其他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一一二 朝鮮映畵社 振替京城二五七三五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朝鮮銀行統計月報 六月分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十錢

▲專賣の朝鮮 十月號 發行所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 定價三十錢

▲카톨릭靑年 十月號 發行所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 카톨릭靑年社 振替京城一二三四六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高麗時報 第五十一號(月二回)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六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二番定價一部五錢



▲콜럼비아蓄音機一〇六號 싸운드뻑쓰番號一一四四一三家庭用定價五十圓品을 半額으로讓渡하겟습니다 四五年前發賣品이오나最近사운뻑쓰와『젠마이』는新品으로交換하엿사오니 新品同樣 下記住所로問議하시압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ノ四九 田 浚

▲日前二十二日 交舍生아 小生의 住所를 發見하고 感激과焦燥를不[illegible]하나이다 小生은 商用으로往所가 一定치못하고 流轉生活을하느니만큼 身邊에關한 一切의問議를 仁川府新花水里二七三의四七番地 舍兄 金定[illegible]方으로照會하여주시오 金興男

▲吳圭植氏 君의卒業當日京城山海旅館에서 作別한지가 벌서四年이되엿나이다 就職갓다온後에는 이때까지 消息이도시업서서 各處君을알만한 友人에게무러도 生死間莫然하다니 甚히답답합니다 或本鄕이黃海遂安게신지 京城게신지 咸興게신지 不遇에苦生을하시는지 最終으로이社交室을通하야 알고저하오니此交室로알려주시든지 便紙를하여주시든지 安邊 旭 生

▲尹佐炳氏! 海珠도잘잇소? 至今은 何處에게신지요?月前에社交室을通하야 알어보앗스나是消息이업기로 또한번뭇사오니幸히此欄을보시면 便紙하여주오 讀者諸賢中에도 元山邑에서살다가 京城等地로 移舍한後至今은 何處在인지不知한 尹佐炳氏를 아신분이게시면 本欄을通하야알려주시면 感謝하겟슴니다 湖南 鄭生

▲讀者諸友中左記書籍을 康價로讓渡又는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編纂加除自在最新六法全書와交換하실이는 末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옵소서

記

一、日本通信大學法制學會編纂普通文官及裁判所書記 試驗問題模範答案集兩卷
一、橫田秀雄著 法律提要(著者의印이有한것)

黃海道載寧郡新繪市 吳世鈞

▲社交室을通하야 先輩諸位께一問하나이다 小生은當年二十歲에少年이온바 어렷슬때는 다음과가튼 弊端이全혀업더니 十六歲때부터 突然히腋臭(겻땀)가나기始作하드니、成年過渡에 이가甚하야저서 至今은社會에交涉이多繁함에따라 苦痛이甚합니다諸者諸位께서 이方法을아시는분이게시거던 本欄을通하야敎之하시오면 厚이謝禮하겟나이다 楊平 苦憫生

▲平壤P生에게!貴下所用되시는『永遠의生命』『無情』을送呈하여드리겟사오니 代金二圓만付送하여주소서 住所如左합 京城府新堂町梧洞村三三一의三五 李鍾觀

▲小生은 京城師範演習科在學中이온데 特히普校五六年生徒를責任敎授하겟사오니 求하시는분이게시거든本欄을通하여通知하시면尋訪하겟나이다』 SS生

▲社交室을 通하야 求함니다 山羊(자-넨種)牡牝와세파-트仔犬放賣하실분은左記住所로 通知하심을仰望 黃海道新溪郡赤余面大井簡易學校 全應泳

▲本人은市內某專門學校에在學中인대 普校生又는 中等入學準備를爲하야 家庭敎師를求하시는분은 府內玉仁町八九ノ一로通知하여주시오. 其方面에 經驗도잇고 趣味的이니 奉酬 一切를要求치안습니다 K生

▲숨은文士여러분에게告합니다 作品은만흔데 出版할資金이업서서걱정하는분은 通知하십시오適當하면出版해드리겟습니다 但版權을生에게 無償으로讓與해주실분에게限합니다 作者의名義만은尊重하게發行書籍에 記載해드리겟사오며 그出版物이一般에게歡迎만밧는다면 適當한時期에適當한謝禮金도드리겟읍니다 京城府阿峴町 崔永澤

▲金豊瑞兄이여! 兄이 徵新學校를 맛치고 東京留學中放學에오신것을 只今으로부터 九年前에 京城長沙洞에서 뵈옵고는 其後 各方面으로 探問하얏스나 消息을 모르겟읍니다 這間 勿論 東京서 서울로 도라오섯슬것으로 압니다 社交室을通하와 알리오니 左記住所로消息을 傳하여주시기를바람니다 黃海道載寧邑鄕花里九五 李順成

綜合ホルモン含有の新白粉

健康을助長하는新樣式의白粉出來

★구라부白粉은苦心研究한結果살결에서吸收하는구라부綜合호루몬配合에成巧하엿습니다、구라부白粉을使用하시면살결이젊고아름답게健康해집니다、

★구라부白粉은살결의健康을爲하야特殊한色素를使用하고白粉의粒子도極히精微하므로異常하리만치잘피고잘먹어서大好評의굉장한新樣式의白粉입니다

★

クラブはき白粉
クラブ衿白粉
クラブ煉白粉
クラブ固煉白粉
クラブ水白粉

クラブ白粉
구라부

演藝

古典歌曲의再出發 『唱劇春香傳』評 (2)

洪鍾仁

다음에 唱劇 春香傳을 西洋의歌劇類와 어떠케 比較說明할것이냐 이것은 無理하다면 完全히 無理하다고도 할것이다그러나 西洋歌劇이 音樂과劇의發達로보아 長久한 時日을經過하는 가운데 音樂은 音樂으로서보다더劇의 音樂化의 要素를加味케되엿고 劇의그內容의 展開와並行하야 場面의 變化로서與行을 無視치못한 어느程度까지의自然的 發達이 잇섯슬것이즉朝鮮의 唱劇春香傳類에서도 그러한程度內의 效果를 目標로어느曲子에 잇서서는 共通的인要求가 모방以前에 成立될수잇슬것이다 그러데 西洋歌劇의 例를본다면 歌劇(歌劇이라면大歌劇이라고하야 悲劇을 主題로한全五幕에 全編을 通하야 管絃樂伴奏로되것을 普通말하게된다)獨唱配役에잇서서 소프라노(女方高音)알토(女聲低音)테너ー(男方高音)베쓰(男聲低音)의 四役이主가되고 其餘로 付隨되는役과合唱 管絃樂伴奏가 잇서서音樂的效果에 十二分의 用意를한것을알수잇다 前記四個의 音別主役은 音樂的으로도 必要하려니와 事件의 人物로서도 어떤劇을 勿論하고 必要한 人物이다 말하자면 靑春男女가잇다면中年또는 老年級의 人物로 父妻、男妹等이 要求되는것과갓다이것이 小說가튼데는 平凡한일이나 普通劇이나 歌劇의 上演에는 絶對條件이 되는것이다(혼히우리劇界에서 볼때에 主役物選擇에 聲音의 高低差等과 그美에 全혀不注意하야 演出上各俳優의 세리후에 和音的效果를못엇는것이만흥은 크게유감인바잇다)또曲의變化에도 敍述調、詠歎調等、伊、獨、佛이 各히時代를따라 作者를따라 달른點이잇스나 緩急또는 拍子等에 잇서서 어떤程度의 形式이잇다

◇

이러點으로 본다면 春秋傳에서도 一部共通點을 찾을수잇고 또 그共通點은 確實히 音樂的效果를求함에 發達된者로 그러點은 더明確히 할바이겟다 即主役 配役에잇서서、春香이가잇고 春香母가잇고、道令과 房子가잇고 其餘에 香丹等잡말가추잇다、이런 役을 어떠케해서唱劇으로 더낫게살리느냐하는것뿐이 問題이다 또各役의 唱으로본다면 緩急其他의變化도잇다 그러나 그唱이란것이 거이同一한形의 旋律의範圍를버서나지못할이 유감이다。 全幕을通하여 살필때 거이는 詠歎的唱曲이 主된것은 當然타할것이나 그歌曲이란것이 아직은 音樂的發達을 못본 原始型에갓가운 民謠로 規範할것이기때문에 言語上土臺를 아직버서나지못한것은 不得已한바로서우리朝鮮人間에 鑑賞할때는 傳說의 感興을이르킴으로서 그未及한點을 補하게되는수박게 업슬것이다 이것은 歌과場面에도關한것이지만은 歌夫歌의 場面은 唱曲의 變化와 아울러 全幕을살리는 效果的인것으로 唱劇의 舞臺效果를 내임에 幼稚한것으로 볼수업는 이唱劇의 뛰어나는手法이라할것이다。

〃메리ー女王〃 R·K·O라디오社作品『男子의敵』을 監督한『쫀·포ー드』의 會心作으로『푸레데릭·마ー취』와『가사린·헤프반ー』이 主演하얏다

電波딸아朝鮮오는 新京의歡樂場

從來 日曜마다 朝鮮交換放送을 行하야오든바 來日 日曜에는 特히 朝鮮에다가 新興國都新京의 特色을 알리고자 享樂의 殿堂인 캐피탈딴스홀로부터 中繼放送을 보내게될러이다。그러고 當夜의 아나운서는 美幸馨氏。

라디오

三日(土曜)

◇午後六時 어린이映畫이야기 「사랑의天使」 成東鎬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朝鮮日報社 洪陽明
◇同七時三〇分 講演〃朝鮮의古歌謠에對하야〃 崔文鎭
◇同八時 流行歌 一、바다의절문이 二、旅路人生 三、꿈에도故鄕生覺 四、봄은돌으다 五、바다의캐라반 六、달빗도외로워 七、산으로바다로 伴奏 DK管絃團 尹鍵榮
◇同八時三十分 首陽山歌外 一、首陽山歌 二、풋고초 三、달거리 崔蓮香 金泰運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雲淡風輕 一、唱劇調 水宮歌 金練守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六時 하ー모니카合奏 京城高工하모니카밴드
◇同九時三〇分 講演 陸軍大臣 寺內壽一
◇同七時五〇分 時事解說
◇同八時一〇分(東)落語 三升家小勝
◇同八時三〇分(札) 陸軍大演習實況(第一日)演習地서中繼
◇同九時(東)義太夫 新義座

四日(日曜)

◇午後零時五〇分 映畫이야기「마주루카」 徐相弼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 하ー모니카合奏 一、세레나ー데…드리고作曲 二、南方의멜로듸…金生麗作曲 三、보리라작의노래…새버로作曲 四、세레나ー데…구노ー作曲 五、바그다드의酋長…보일드作曲 일파 하ー모니카밴드 指揮 金生麗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心의啓發」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伽倻琴獨唱 短歌 大丈夫 二、唱劇調 沈淸歌中 皇城올나가는데 鼓手 池龍九 吳太石
◇同八時 歌詞 一、春眠曲 二、白鷗詞 金蕉紅 盧錦桃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八時三〇分 室內樂 一、쏘나타 作品第八番…헨델作曲 안단테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 二、쏘나타C短調中에서 J S 빠하曲 라ー르고 빠이올린、J、F 클라리넷트、R、H플룻 피아노、J、B스루데니
◇同九時 野談 賢無性別 庾秋岡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滿洲캐피탈호ー르로부터中繼】舞蹈音樂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農村講座 三代淸滋
◇午後〇時五〇分(東) 野球實況
◇同六時(東) 이야기漫談 德川夢聲
◇同七時三〇分(東) 落語의밤 저녁 堀亭小勝 春風亭柳枝 林家正藏 三遊亭圓生
◇同八時五〇分(大) 映畫劇 高田稔外

五日(月曜)

◇午後〇時五分 執杖歌外 一、遊山歌 二、제비가 三、平壤歌 四、執杖歌 宋英淑
閔恩淑
◇同一時一五分 主婦時間 『營養의實際問題』(二)『年齡과營養』 梨專敎授 金浩稙
◇同三時一〇分(東) 敎師時間

【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 兒童劇「참동무」全二景 ー配役ー 玉善…金東淑 立粉…韓貞愛 景順…韓福成 先生…徐靜波 生徒一…趙姬淑 生徒二…金玉姬 버들피리會 指揮 太成均 伴奏 金海風 效果 張基泉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産業뉴ー스 經濟解說 韓昇寅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朝鮮地下資源에對하야〃 總督府事務官 金秉旭
◇同八時 漫談 一、가을風景 二、아리랑世界一週 黃材景
◇同八時三〇分 管絃「靈山會相」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燦 玄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杖鼓 李章夏
◇同九時 夢金浦打鈴外 一、山念佛 二、긴난봉가 三、齋邊歌 四、방아타령 五、노들江邊 六、夢金浦打令 金玉仙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午後〇時五分(東) 和洋合奏
◇同六時 朗吟과琴 安藤經子外
◇同七時三〇分(東) 常磐津 常磐津三東勢太夫
◇同八時(仙) 俚謠
◇同八時二五分(東) 講談
◇同九時(札) 講演 [illegible]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ー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 東洋畫科(四君子를包含함)
- 西洋畫科
-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 自由畫科
- 手工科

褒賞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選賞에兼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九月廿七日로써마음 一、搬入期日 九月三十日로써마음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은 本社又는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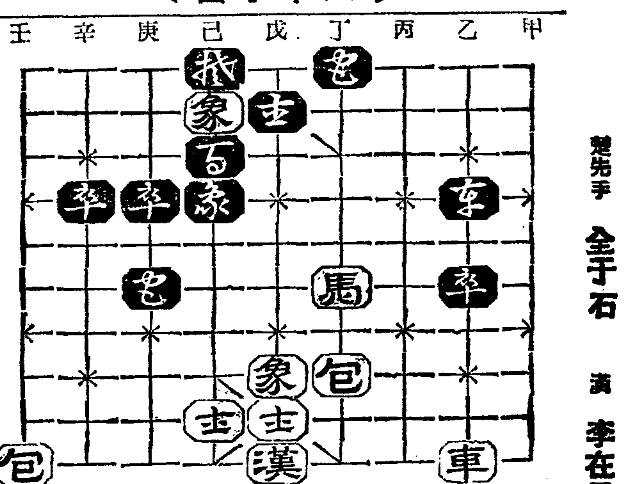
主催 朝鮮日報社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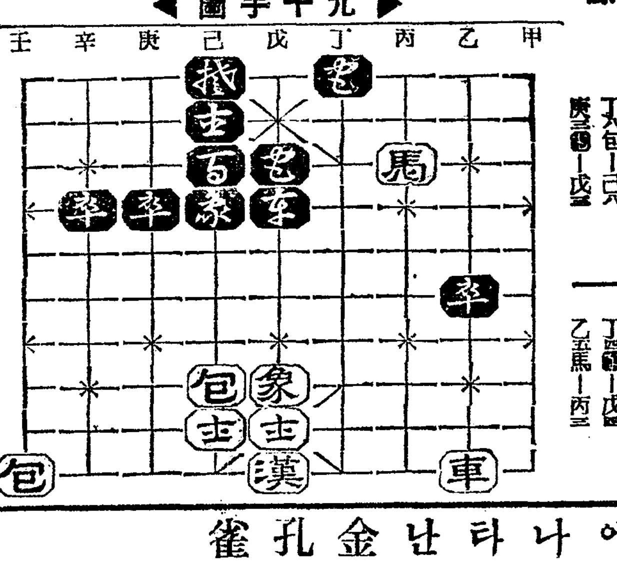
楚先手 金于石 漢 李在鳳

戊四ー己三打象 丁六馬ー己七 庚六包ー庚三 丁八包ー己八 庚三包ー戊三
己七馬ー丁六 乙四卒ー丁四 丁六馬ー乙五 丁四包ー戊四 乙五馬ー丙三

◀十八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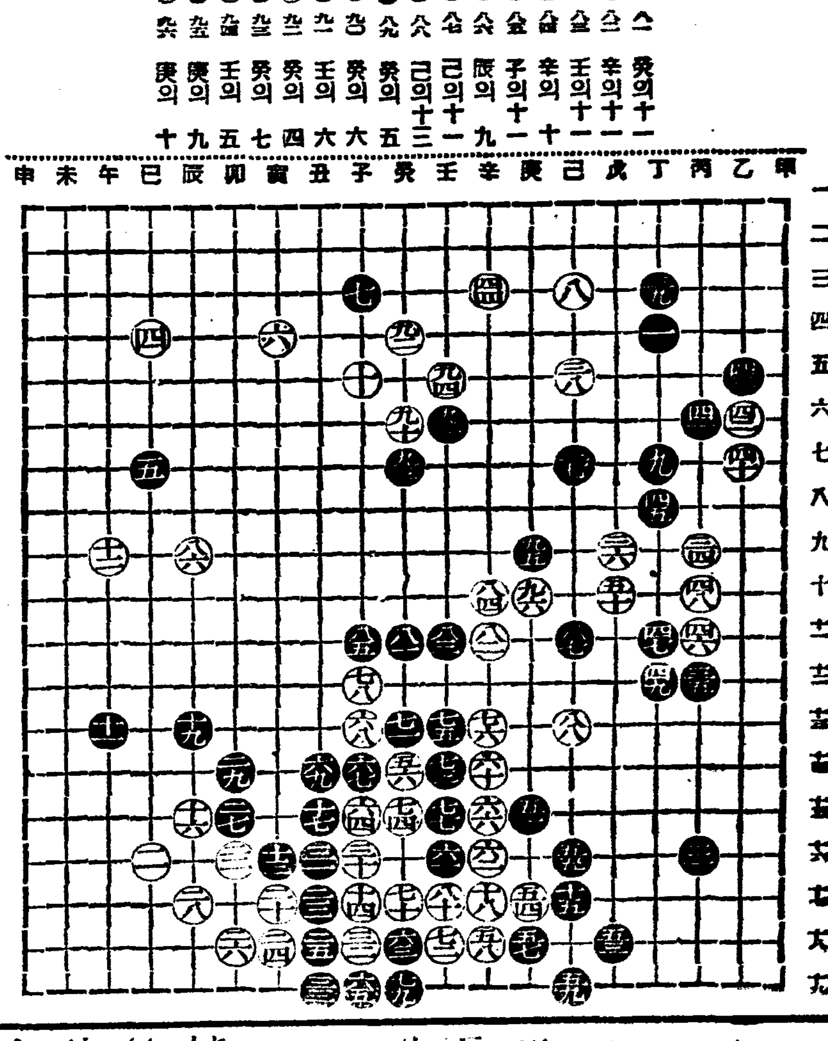


◀十九手圖▶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ー6ー

白 裴極文
黑先 丁奎春



● 癸의十一
○ 辛의十一
● 壬의十一
○ 辛의十
● 子의十一
○ 辰의九
● 己의十一
○ 己의十三
● 癸의五
○ 癸의六
● 壬의六
○ 癸의四
● 癸의七

對局者談

黑己의 十一이 禍胎를 潛藏하야 白兩陣圖斷秘計를 試用하니 一場風雲은 激戰狀態로 變動되다 黑癸의 五一點犧牲을 이로서 推想하노라

朝鮮에서 第一가는 이燦爛한女性雜誌는 누구나 읽지안을수업다

秋夜長긴긴밤에 어滋味잇고 實益잇는 女性을 누구나 읽으십시오!!

發行所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定價 十錢 送料 一錢

十一月부터는大增頁斷行
華麗燦爛한內容이 編輯速히注文하시오

朝鮮雜誌王朝光의姉妹誌! 雜誌界에나타난金孔雀

女性

十月号發賣中

女性十月號目次
거짓말의心理 李光洙
十三道女性巡禮(咸鏡道篇) 李軒求
家庭太平記 醫師金錫遠氏家庭
◇個性의發見 金興濟
美人과言語美 洪鍾仁
◇世界的女流音樂家群像 金管
◇在東京우리新進美人의人物帖 張飛
性生理學 鄭槿陽
새人間과새貞操觀 南萬民
가을과女性 安夕影
制服의處女葬送悲曲 S生
◇우리學校자랑(中央保育篇) 李孝石
◇細楠의편지 毛允淑
◇그리운동무에게 金裕貞
◇幸福 李箱
◇幸福을은친情熱
◇내안해와論文 金基錫
文人과가을 주요섭 外十二文人諸氏
◇夏休日記抄 尹榮寶
◇秋期兒童服 郭信愛
◇우리집食卓의한가지자랑 任貞赫 金永愛
◇畫報 世界女性展望 女性界消息 모던趣味帖 家庭메모
◇百合花
◇詩·明朗 吳一島
◇詩·ー영의에게ー 李恒齊 毛允淑
創作 鐵路 李泰俊
創作 省墓 宋影

穀價低落을理由로 配給種穀을增徵

配給當時는運賃手數料만加算約束

咸南道當局의怪計畫

【咸興】咸南道에서는 금년봄에 산지대인 장진(長津)풍산(豊山)갑산(甲山)단천(端川)삼수(三水)신흥(新興)등 륙개군에 배급한 종곡(種穀)을 회수함에 잇서서 봄에 배급할때의 종곡가격보담은 최근에 현저히 내렷슴으로 배급할때와 가튼수량을 바다서는 그차액(差額)을 도저히 부담할길이 업다는것으로 각호에 대하야 배급할때보담은 일할오푼가량의 증가회수(增加回收)를 할계획하에 위선 이일전긔각군에 대하야 미리 그뜻을 통첩(通牒)하엿다 원래 금년봄에 배급한 종곡은 각종곡을하야 모다 실비만으로서 그를 수확긔에 상환(償還)할때에는 무리자(無利子)로서 운임(運賃)과 수수료만더 가산하야 배급할때와 동수량의 현품(現品)을 밧치라고하얏다 그런데 곡물가격이 배급할때보담도 현재 회수하려고 하는때 시가가 퍽 내리고잇슴으로 전기와가티 더바들수밧게 업다고 하는데 그반면에 배급한 곡종(穀種)은 금번에도 역시 천후불순한관계로서 모다 감수(減收)를 면치못하게 되엿슴으로 상환할농민들은 결국 수확도 적고 공출량은 더들어야하게됨으로 이중의곤난를 불수밧게업다고한다 특히 회수할때에는 연맥(燕麥)을 제일만히밧치라고하엿는데 금년도의 연맥은 전해에지지안흘만큼 감수를 면치못하얏스니 상환하는농민들로서는 더욱곤난할것이며 농작민구제의 최초의 호의도 필경은 악영향을밋치지 안흘가하는 념려도업지아나타고한다 여하튼아직도 확실한결정은 보지못하고잇스나 당국회수할시긔를압두고서 그귀결은 극히주목된다고한다

至誠은最後까지 救濟의火炎不絶

大阪各大學生各團體가總動員 莫大한金品을또寄託

【大阪】대판재주동포들은 서로 힘을 모아 수난의리재동포들에게 금품들을 본지국을통하야다수히 보낸바 잇거니와 근일와 기사단체에서는 다음과가튼 활동으로 모은금품을 리재지에보내달라는기탁이 잇섯다

◇대판에 류학하는 각학교대표들만으로서 대판류학생 조선풍수해구원회(大阪留學生朝鮮風水害救援會)를 조직하고 류학생끼리만 서로십전이십전식 모은돈 일백이십사원육십이전으로서 가다랑(鰹節)천십이백개를 사서 수물두궤에 너허 본사대판지국에다리재지에 보내달라고 의탁이잇섯든바 그금액의 내역과학교별은 다음과가다

內譯 關西大學二十一圓十錢日本大學十二圓五十錢 此花商業三十一圓四十七錢 浪華商業十圓 北陽商業七圓七十五錢 興國商業六圓九十五錢日新商業四圓三十錢 京阪商業三圓城東商業四圓六十錢堺商工青年學校二圓 成器商業七十錢關西甲種商業五十錢大阪中學八圓三十五錢上宮中學三圓八十五錢自彊學院二圓浪速中學三十錢 關西簿記學校三十錢鐵道學校五圓二十錢今宮職工學校二十錢大正小學校高等科二十錢浪花高等女學校三十錢港南小學校高等科二十錢우루미나高等女學校八十五錢 總計一百二十六圓六十二錢也

◇니기시축지정사정목에 잇는 관서유일의 우리의 경제긔관인관신소비조합(阪神消費組合)에서는 그간 판신각지에서 구제금으로 모은금액 이백륙십원이십오전으로서 당목 륙십통 이천흡배이척오촌을 구입하야 리재지로보내달라고 본보대판지국에 의탁한바이잇섯다

◇시내동성구저사야정에잇는 조선긔독교동부교회(朝鮮基督敎東部敎會)에서는 동교인들이 구제금으로 연보한 금삼십오원삼십전으로서 동교회 간부와 남녀면려청년회원이 출동하야 오일반이나 세탁비누 행상을하야서 리익칠십칠원삼십일전을 어더 합계일백십이원 륙십일전을 리재지로 보내달라는 기탁이잇섯다 낭속구영정에잇는 우리기관으로서는 공인조합의 하나인 대판조선약업조합(大阪朝鮮藥業組合)에서는 동회간부들이 일주일동안이나 동조합원을 방문하야 서로모은 구제금 이백오십일원오전을 동조합간부 최봉룡(崔奉用)김형극(金炯極)량씨가 가지고 본보대판지국을 방문하야 송부의 의탁이 잇섯다

◇시내동정천구사구정에 잇는조선불교련합종무원(朝鮮佛敎聯合宗務院)에서는 소속각포교소포교사와 신도들에게만 모은동수재구제금 칠십삼원 삼십오전을리재지로 보내달나고 본보대판지국에의탁한바이잇섯다

◇水災同情畵報—(上)本社平壤支局에寄託된救濟品을發送하는光景(中)本社經由救濟品을 本社醴泉支局에서 郡內災民에게 配給하는光景(下右)救濟品을가지고 本社宣川支局을來訪한 赤藥幼稚園兒及娠母一同(下左)救濟品을 蒐集해가지고 本社大阪支局을來訪한 大阪留學生代表들

金剛山探勝團出發

【平壤】본사평양지국주최 제사회금강산탐승단(金剛山探勝團)은 예정일오후열한시 십오분발렬차로 원긔왕성하게 평양역을 출발하엿다 단원은 인솔자 본사평양지국 특파원 김만형(金晩?)씨이하 이십삼명인데 왕복십일간예정으로 내외금강을 탐승하기로되엿다

青年團員이禁煙 罹災民을同情

【長湍】이재동포구제의 눈물겨운 동정미화! 경긔도장단군군내면송산리(郡內面松山里)에잇는 군내청년단방공분단(郡內靑年團防空分團)에서는 이재동포의 가긍한정상을듣고 단원일동이 금연(禁煙)을 단행하고 절약하야 현금십원을 모아서 면당국에 이재민에게 송금하야 달라는 의뢰가잇서서 당국에서도 감격하게생각한다고한다

三湖支局主催의 經濟講演會(十月九日)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三湖】오는시월구일 본보삼호지국주최로 독자위안을 아울러 일반대중에게 경제지식을 보급시키기위하야 본사주필 서춘(徐椿)씨를 초빙하야 경제강연회를 개최한다는바 발서부터 인긔는 놉흥하고잇다한다

學生이줌쌀모아 小米一斗三升 感激할이赤誠

【西湖津】서호면운흥리(雲興里)에잇는 운흥학원(雲興學院)에서는 선생과학생이 아울러 남조선수재에 배고파우는리재민에게 전달키위하야 매호식의쌀을 일일히모아서 일두삼승을 만들어 선생되는 강식택(康植澤)씨와 강상택(康尚澤)씨가 자전차에실고 십리나되는 본보서호지국을방문하고 이쌀은 한줌식모아오쌀인데 원아동들이 농촌에뭇친무산학수재에 배고파우는동포에게 전하여달라고 긔탁하엿든바 그무산아동들의동정열에감격이넘치어 일반적으로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初等敎育員大異動

【平壤】농업학교졸업생으로 사범학교에입학해잇는 졸업생중에서 평안남도에 배치되는 이십명때문에 초등학교원의 대이동을 단행하기로되여 금명중에 발표가 잇슬모양이다

國有林野를開放 十六萬町步公賣

咸北道産業課서計畫

【羅南】함경북도 당국에서는 종래의방침을 변경하야 필요업는국유림야(國有林野)를 될수잇는대로 개방하야 일반민중에게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하기로되여 금년에이르러 처음으로 도내국유림야로부터 약십륙만 정보(町步)의 대규모의 개방을 시행하리라한다 공매긔일은 아직 발표하지 안핫스나 불원에 총독부당국의 인가를어더가지고공매입찰(入札)을하리라는바 압흐로도 계속하야 속속처분을하게되리라한다

南無産學院兒童 純情의救濟金

【大田】지난수해에 식량과의복을 모조리수마에게 빼앗기고 입을것과 먹을것이업는 리재동포를 구제하라고 순정에넘치는어린학생들이 매인에게 얼마씩 거든돈을 리재지에 보내여달라고 본보대전지국에 긔탁하야온 것이 두건이잇다

◇…대전부본정(大田府本町)에잇는 무산아동교육긔관으로 대전에서 최고권위를 가진 본문학원(本文學院)에서는 빈한한 학생들이 한푼식모은돈을 절약하야 현금 삼원오십전을모아 재해지 동포들에게 보내여달라고 지난이십구일 본지대전지국으로 긔탁하야왓슴으로 대전지국에서는 즉시본사로 송금하얏다

◇…대덕군진잠면 성북리(大德郡鎭岑面城北里)에잇는 간이학교에서도 현금일원을 모집하야 지난일일 대전지국에 긔탁하야 왓슴으로 즉시본사로 송금하얏다

平康邑에傳染病

【鐵原】평강읍에는 요사이 환절긔인 관계인지 바라지부스창 질부사 등 가진전염병이 창궐하야 륙십여명의 환자가 지금신음중인바 그전염성이 너무속함으로 평강경찰서에서는 예방에 대하야 맹렬히 활동하는중이라고한다하며 그인접지인 철원읍에 전염될가하야 좃터하면 교통단절에 까지 이를는지도모른다고한다

第四回全大邱幼稚園聯合 스마일링大會(十月五日)

本報大邱支局主催

【大邱】본보대구지국주최인 제사회전대구유치원아동련합스마일링대회는 추석당야에 대구공회당에서 거행할예정으로 본보에 긔보하엿든바 오는십월오일로 이여서 부득이 연긔하게되엿다 이대회에참석할 신정(新町)본명(復明)효성(曉星)은총(恩寵)각유치원은 벌서부터 만반의준비를마치고 대긔중에잇슴으로 당야의 각유치원어린천사들의경연은 일반청중의 비상한감명을줄것으로 이대회의 인긔는 벌서부터 선풍적으로일어나고잇다 당지대구에서는 흥행적 영화음악회등의모임은 자조잇스나교육적으로된 모임이적어서 일반은 금번이대회가 열리게됨에대하여 긔대가크다고한다

批峴에强盜出現 格鬪끄테逮捕

【批峴】평북비현체마동김만일상점(批峴替馬洞金萬一商店)에는지난이십팔일오전네시경 강도한명이 퇴문으로 침입하야 주인의 자고 현장에 달려가 체포한후 엄중취조한결과 이강도는 신의주부외마전동(新義州府外麻田洞)에 거주하는 장수영(張秀永)(三○)이란 무직청년으로서 비현장날을 리용하야 전긔김만일상점에 침입하엿다는데 지난이십구일 신의주경찰서로 압송하엿다고한다

本社發送救濟品 一千三百餘點也

醴泉郡內災民에配給

【醴泉】경북례천지방에는 금번 풍수해로 백여만원의 손해를아벗는데 의식에곤난한 리재민이 수천명에달하엿다 이들을위하여 본사에서는 각지에서긔탁되는의류일천삼백사십여점을본보례천지국으로 보내엿슴으로 본지국에서는 각면장과타협하여 각면소의 응원으로 면면이 배급하엿는대 배급별은 다음과갓다

龍宮面 豊壤面 知保面 柳川面 開浦面 虎鳴面 甘泉面 上里面 下里面 龍門面

九王運送店特志

【平壤】동족애의발로로 본사평양지국에 부민제씨로부터 긔탁한 만흔상남리재민구제품을 일일 재지 안동(安東)과 금천(金泉)에 발송햇는데 부내 수옥리(水玉里) 환왕평양상공운수조(丸王平壤商工運輸組)에서는 하조로 해주어서 운반(運搬)일체를 무료로 해주어서 지국관게자들을감격케햇다

訓導끼리亂鬪

運動會會場에서

【大田】운동대회날 수천의관중과 생도들압헤서 선생끼리일대격투극을연출한사건— 지난이십칠일 오전구시경 대전제일공보교 추긔대운동회날운동장에서 대회설비를하고잇든훈도 천수(天水)(假名)씨와 리구존(李求存)(假名)량씨가 농담끄테 무슨말끄테이생기엿든지 천수훈도가 돌연리훈도에게 덤벼드러 무수란타하고 그래도부족하엿든지 리씨를 사무실로끄을고 드러가서 함부로 란타하얏다는바 소위교육자로 수천학부형과 어린생도들압헤서 그와가튼 추태를 연출한것은 교육계에적지안흔 불상사라하야 일반은 여론이비등하다는데 때마츰 교장은 만주방면에 시찰가고업섯슴으로 그결과제재할사람까지 업서고한다 교육게에서 남의자녀를 교육하는훈도로서 그와가튼추태를하엿다하야 학부형들은 압흐로 문제를이르킬 긔운이농후하야 사태의장래는 매우주목된다고한다

惠山鎭

經濟大講演會

▲時日 十月十二日午後八時
▲場所 明治會館
▲演題 景氣의過去及將來
▲演士 本社主筆 徐椿氏
◇主催 朝鮮日報惠山支局

鳥致院

全朝鮮弓術大會

▲時日 十月六日부터三日間
▲場所 鳥致院驛前六一亭
◇主催 鳥致院六一亭
◇後援 朝鮮日報鳥致院支局

愛慾의彼岸 【117】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주상의 말을 들으매 혜련은 말할수업시 괴로웟다. 혜련은그 손이라도 잡아주고시펏다. 한번 그 가슴에 매어달려서 주상의 마음을 위로해주고시펏다. 그러나 혜련은 그것이 도로혀 준상에게 더괴로움을 주는것임을 생각하고,

『아이 그리시다가 병환 나시면 어떠케서요?』

하고는 아모 감동도 업는 표정을 지엇다. 주상이가 보기에 혜련의 태도는 넘우나 쌀쌀햇다.

혜련은 준상의 눈이 이상하게 빗나는것을 보고 살작 준상의 뒤를 돌아서 아플 서서 것기를 시작햇다.

『매서운 게집애다』

하고 준상은 걸어가는 혜련의 뒷모양을 바라보면서 속으로중얼거렷다. 그러나 그러타고 준상은 혜련을 미워할수는 업섯다. 그 매운 마음이 뼈욱 그리운듯햇다. 저러케매운 마음이면속에는 타는불을 감추고도 것으로는 쌀쌀한 모양을 보일수도 잇는것가티 생각햇다.

『아직도 긔회는 남앗다. 장안사까지 따라가자』

하고 준상은 원산서 듯든 명훈회 말을생각해서 뼈욱 제마음을 채지질 햇다.

『그만 단념하고 말지』 하는소리가 준상의 마음속에 아니 일어난것도 아니엇다.

『무어이냐. 대장부가 일게아녀자로 해서 이러한 욕을 당하고.』

이러한 한탄구조의 자책도햇다.

『저 게집애가 아니면 천하에 게집애가업는냐』

하고 입도 비쭉거려보앗다. 그러나 준상은 아모리해도 혜련의 그리운 그림자를가슴에서떼어버릴수가 업섯다.

『저런 녀자를 안해로 삼엇스면!저녀자의 마음을 한번 정복해보앗으면!』

이러한 생각이 준상의 마음을 그려주엇다. 만일 혜련을안해로 삼아서 그 속에서 아들딸이 난다면 필시 마음이 단단하게 나리라 하는 생각까지도 낫다.

준상은 혜련의 뒤를 따라서 걸엇다. 어쩌면 혜련이가 한번도 뒤를 도라보지도 아니하고 휴레로 쑥 드러가버릴까.

『어듸를 갓다가 인제 오느냐』

하고 김장로는 혜련이가 드러오는것을 눈을 크게 떳다. 격정하는 표정이엇다.

『비로봉이 얼마 안 되는것을 알고 헤뜨는것 보러 갓섯서요』

하고는 혜련은 제 방으로 드러갓다.

『어듸를 가면 간다고 말을하고 가지. 이 산중에서 두시간 세시간 간곳을 몰라서 찻게해?』

하는 아버지의 말이 혜련의뒤를 따라서 드러왓다.

혜련은 드러오는 길로 피곤한드시 교의에 몸을 던젓다. 지나간 세 시간이 한 천년지난것 갓기도 하고또 꿈갓기도 햇다. 혜련은 눈을감앗다. 구름ㅅ속의 비로봉, 강선생, 주상, 칭칭대ㅣ아러한긔억이 떠 올랏다. 그것은 일생에다시 돌아오지못할 순간이엇다. 혜련에게는 처음이오 마즈막인 경험이엇다 어떠케나 꿈가튼 일인고!

『어딜 갓다 왓서? 밥 먹어요』

하는 문임의 말에 혜련은 눈을 번히 떠보앗스나 졸리는듯이 구찬은듯이 도로눈을 감아 버렷다.

혜련은 아모도 업는 곳에혼자만 잇고시펏다. 혼자만이 지나간 생각을 도로불러보고 시펏다. 혼자, 혼자, 언제까지든지 혼자 잇고시펏다.

『어서 밥 먹어』

문임은 혜련의 손을 잡아이르켯다.

식후에 김장로 일행은 비로봉을 행하고 떠낫다. 만일 다리 아픈 사람이 아니 생기면 장안사까지 가지 그러케못되면 마하연에서 잘 예정이엇다.

여느때 가트면 집을 떠나기를 어려워하는 김장로도 이번길에는 마치 세월가는것을 아저버린것처럼 도모지 재촉을아니햇다. 김장로는 마치 나이한 이십년이나 젊어진 사람 가탯다. 면도도 어느틈에 하는지몰라도 험은 늘께끗햇고 갈로머리에는 언제나 빗자욱이 잇섯다. 옷을때가 만코 농담으로웃길때도 만헛다. 혜련은 아버지의 이러한 변화를기뻐해야 할것인지, 슬퍼해야 할것인지 종잡을수가 업섯다. 다만 사내가 어떤여자 하나를 사랑한다는것이 어떠한것인줄을 아버지와 준상으로 해서 알게된것갓고, 그심리가 모도 이상한것 가래서 빙그레 우서젓다.

十三萬農民關係의 東津江改修問題(二)

東洋一의水組設立코 茫茫沃野千里를灌漑

新泰仁支局 金容穡

그런데 東津江平野의大地主는 大部分이 日本內地人으로 東拓會社二、〇〇〇、〇反 阿部農場一、〇〇〇、〇反 石川農場一、〇〇〇、〇反 多木農場一、二〇〇、〇反 熊本農場一、二〇〇、〇反 右近農場三九〇、〇反 東洋農業株式會社一、四〇〇、〇反等을 所有하고잇다한다

以上大地主들은 大正九年에與村竹三郎氏를 委員長으로 創立委員會를 組織하고 其翌年에測量完了하야 基本計劃을終了햇는대 其費用負擔에對한問題로 各地主間에 紛糾를釀하야 드듸여 一時停頓狀態에 入하엿다가 大正十三年稀有의 大旱害에刺戟바든 各地主들은 水利組合의必要에痛感되여 旣往基本計劃을終了햇든 東津水利組合設立할것을承諾하고 大正十四年三月十六日에 全北道廳에서 創立委員會가 正式으로 成立되엿다。大正十四年八月十九日에 設立認可를得하자 當時全北道知事李圭完氏는 官을退하고 組合長에 就任해서 工學博士佐原辰雄으로 其工事의完成을보게되엿다 더부러 三年間繼續事業으로 其事務費及財源을 一瞥하면

事業費總額

旣定事業費

科目	豫算額
管理費	三一、一〇五圓
工事監督費	六四九、五一〇
工事費	五、七三三、四七三
用地費	一、六四一、六三三
雜支出	五五、五〇〇
道路改修寄附金	八〇、〇〇〇
創立費	一二五、〇〇〇
組合償還	五八九、七九二
豫備費	一三三、九八七
計	九、四〇〇、〇〇〇
第一擴張事務費	二〇〇、〇〇〇
合計	九、六〇〇、〇〇〇

旣定事業費財源

種別	豫定總額
起債	七、六五〇、〇〇〇圓
國庫補助	一、六六三、二七四
地方費補助	一〇、〇〇〇
雜收入	七六、七二六
計	九、四〇〇、〇〇〇
第一擴張事業財源	
起債	一六三、九〇〇
國庫補助	三六、〇〇〇
雜收入	一〇〇
計	二〇〇、〇〇〇
合計	九、六〇〇、〇〇〇

如斯히莫大한財源으로 工事에着手햇다 水源地는 半島八大江의一인 全南蟾津江의 本流와秋嶺川의 合流點으로부터 約七百間下流의 任實郡江津面江津里에 河床上高八十二尺五寸 長百六十五間의『콩크리트』로 築造하야 其頂部에 高十二尺五寸의『렌다ㅣ게ㅣ트』를붓치고 滿水位를 九十五尺으로 洪水時에는 其의扉를捲上하야 溢流케하고 滿水位의標高五百七十尺 貯水池面積七百二十一町步 其成川形이 上下六里半 周經十八里餘 集水面積은 上流部一帶에 亘해서 四十九方里 最大有効貯水量二十一億八千二百餘萬立方尺의宏壯한 蓄積을하고잇다

貯水는 堰堤上流部의 約一里雲岩面雲井里의 母岳山南麓을鑿穿하야 三百五十餘間의 隧道를構成한後 母岳山底脈을 穿貫通潛流落케해서 右方本幹線은 新泰仁驛前線道를 底穿하야 新羅時代에 沃野로 名聲이놉든 碧骨堤中心의 金萬大平野를 灌漑하는대 灌漑水路의 延長이 一萬三千二百二十間과 該幹線左右에 十五線이 在하야 總延長 三萬九千二百八十六間의 支線이 分配되고 更히此를 百二十一線으로하야 總延長 八萬千二百十三間의 配水線을 分配햇고 左方井邑幹線은 淨雨面山北里錢路를 橫穿하야 李朝時代의 沃野로名聲이놉든 光山、龍潭中心의 梨坪、白山大平野와 萬石洑中心의 新泰仁、淨雨兩大平野를 灌漑한다 其水路의 延長은 六千七百三十六間으로하고 更히 延長八千百十八間의 配水路를 作햇다 東津水利組合 灌漑面積은 金堤、井邑、扶安三郡 二十三面、百十二洞里와 一萬七千町步 組合員 四千八百名이라한다

今日까지의 科學發展의 水準은 大自然을 征服하지 못햇다 農業에在하야서도 旱、水、風、冷虫其他 災害를 征服치못하는데 東津江平野에는 如斯히 巨大한 財源으로 波瀾曲折과 許多한難關을 突破하야 各災禍中 旱災만은 征服하야 旱災로 因해서 荒廢되엿든 全然이나 그러나 旱災보담더 甚한것이 水害로서年復年十餘萬의 罹災民을 産出하는데 其慘狀을續記하고자한다(續)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 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創製인털나는藥フミナイン은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그脫落을防止하고、卽頭毛、눈썹、수염、鬚毛、其他人體毛髮이 稀薄한것을濃密케하고 毛根이라도 잇스면 털나는藥フミナイン의發毛로 漸次生長식히요 禿頭病에依하야 毛髮이脫落될時 其脫落을防止하고 또 이 諸病에 原因한 禿頭脫毛에 對하야서도 病菌을 殺滅식혀서 그와갓치 털을나게 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헌머리●반머리●脫毛●헌어릴빠진대●대리목지상한대●눈섭성긴대●털잘못난대●男女의잇슬곳에털업는분……은그것다말고곳使用하라

毛生藥 후미나인

フミナイン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萬一品切時는 代金添付左記發賣元에注文하라、卽時送藥함。

(全國藥店에잇슴)

模造品만음 꼭フミナイン이라指名 하시고買入 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三一八三二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五五六 振替大阪五六八八番 東京藥院

風病

大風病을百發百中全治하는有名한藥이本藥院에서發明되엿다 此風病藥이出生한지不久에擧國한大風患者로서完全根治되는者가續出되며 甚至於病院에서健康診斷을바든者도有하다 本劑는더말할것업시 三期가된風病患者라도三個月만服用하면表面에나타난風病症狀이完全히治癒되여 다시말하면 빠진눈섭이 完全히 나고 얼굴이붉고도틋한데와 전신에 나타난 風病症狀이 完全히 나흔다 …… 病菌撲滅하고남과가티健康者가되여보겟다는決心이잇는분은一刻이라도지체말고速히强壯チモール丸을服用하시라 … 藥書照會는謝絶 釜山府草梁町四七番 藥院內 癩病根治策研究所 急告

有給社員採用(男子十名) 生活安定 親切指導

(初給五十圓又는百圓以上 卅五歲以上希者는履歷書付送、面會日通知함 (經驗有無不問) 官廳會社前職者는特別優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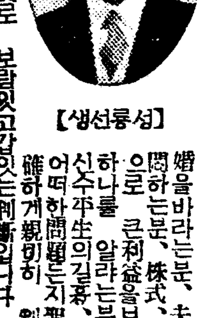
大田府大興町三番地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 大田出張所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생선룡성】

京城相學院長 聖龍先生은科學的관상학의大家로서만흔 士들의관상을보고 大好評을밧는 대사업가、名士들의관상계의 권위자입니다 前途方針에對하야 혜매는분、適業을擇하고大成功을바라는분、幸福한結婚을바라는분、夫婦間의서로맛지안는분、株式、期米、鑛山業으로큰利益을보랴는분、其他、損害를당하는분、訴訟의勝敗等 問題、信수平生의吉凶을 알라는분、 어떠한問題는지聖龍先生은 明確하게親切히 判斷하며勝業成功의길을 보여주는眞實로 보람잇고감잇는判斷입니다 今時에 운수가틔어운분이되시요 料金은普通觀相壹圓이오 觀相을보시고

◇京城太平通二丁目三〇六 (南大門과大漢門의中間電車通り) 京城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생년월일과 面으로자세히회답해드립니다。 (사진이잇스면더욱명확합니다)

經濟解說 數字론大豐作 一回豫想發表보고

李 健 赫

× 今年의 朝鮮은 變態的인 南朝鮮에 水害가잇고 湖南線에는 三回나 風害가잇섯스며 西朝鮮에는 旱害、中部及北朝鮮에는 稻首稻熱病에다가 螟虫害가잇섯스며 一般으로 冷害가잇서 이제 風水害의 被害額만을 볼지라도

全北	三、四六七、一八三圓
全南	四、八三六、七九四
慶北	一三、〇八三、九六三
慶南	二九、八〇五、一八二
總計	五一、一九二、一三二

으로서 이外에 被害가 慶尙、江原道의 被害額을 合算하면 實로 七千萬圓의 記錄的大被害임에도 不拘코 第一回米作收穫豫想이 三日正午에 發表된바 一千九百九十四萬二千百九十三石이란 未曾有의 大豐作數字로서 比前年實收 二百五萬七千五百二十四石(一割一分五厘)의 增收로서 過去最高記錄인 昭和五年產 一千九百十八萬六千百七十七石을 超過하고 新記錄을 突破케된 實로 意外의 일이다。

× 이것은 무슨까닭이냐 今年부터 實施한 所謂 米穀三大調査때문에 생긴 意外의 數字이니 調査方法을 變更하되 마치 米穀自治管理法이 實施되는 이때에 잇서서 實際는 在來調査方式에 依하면 一千五百五十二萬六千十石으로 比前年實收 一割三分二厘減收로 昭和四年以來의 凶作임에도 不拘코 이러한 未曾有의 數字가 發表되엇스니 朝鮮의 經濟가 米量에 左右되는 만큼 그 影響되는바 實로 重且大한것이 잇슬것이다。

× 全日本의 稻作視察로 朝鮮에 와서 加賀卿之吉氏가 咸興에 열린 米穀大會에 參加하고 朝鮮의 懇談會에 朝鮮米作實際를 視察한것에 依하면 大體로 左하야 實際는 (昨年까지의 調査方法에 依하면) 千三、四百萬石에 不過하는 凶作이라고 말하다。 即

「例年灌水不足으로 移秧이 不能하야 移秧지못한것、移秧이되어도 降雨不足으로 枯死하던 天水畓은 今年의 多雨로 平作보다 移秧이 增加되엇스니 잇기는 하나 山間의 平地部에서는 冷氣로 緩慢한 光景에 우는 農民도 잇다。 京義線、京元線、元山咸興間 京奉線의 平壤까지는 激甚한 稻首稻熱病에 걸린 水田이 만엇고 旱害로 移植不能이던 그만큼 田이 相當히 만흔것 뿐아니라 田植된것도 冷氣와 用水不足인것이 만헛스니 이러한것을 보면 減作은 事實일것이오 朝鮮米作第一回豫想은 決코 一千五百萬石以上은 안될것이며 前年 即 昭和十年產米 一千七百八十八萬四千六百六十六石에 比하야 四百萬石內外減收인 一千三、四百萬石으로 본것이 決코 過大한 推測이 아니며 이에 相當한 資料과 各地情報를 綜合한때에서 나온것으로 六感만의 말이 아니라」고 한다。

× 米穀三大調査를 實行한 總督府 農林局으로서도 이 關係를 念慮하야 「過剩米와 統制에 잇서서 日本內地三五、朝鮮四三、臺灣二二의 配定比率은 內外地가 모다 作況이 平年인 狀況에 依하야서의 比率이오 豐凶如何에 依하야서는 比率의 變更을 하여야 할것이오」 九月十九、二十兩日間 咸興에서 열린 米穀大會에서도 緊急動議로서 自治管理法이 發動할때 朝鮮配定比率四三의 改正 要望이 잇섯는바 그 要旨는 「現在 豫期하는 程度의 減作이라면 十一年度產米의 日本內地移出은 十年度移出의 半額程度로 激減될 念慮가 잇스니 過剩米推定에 依하야 얼마만큼의 管理가 配定되지는 未知의 問題이나마 三四의 比率로서 하면 相當多額될것으로 朝鮮經濟로서는 큰 苦痛이즉 事前에 比率訂正을 總督府에서 農林省에 交涉해달라」는것이엇다。

× 이뿐아니라 稻作에 經驗을 가진 關係官吏、大地主、中農、米商等의 共同한 觀測은 異口同聲으로 稀有의 凶作이라는데 一致되어잇스며 朝鮮取引所聯合會 臨時總會는 二十日午後 咸興府會議室에서 열린바 「朝鮮米作은 平年作보다 三割五分乃至四割의 減收가 明白하니 朝鮮에는 米穀自治管理法發動을 停止하라」고 當局에 陳情키로 決定한 等 問題가 事前에 이미 擡頭되어잇다。

× 日本內地米 第一回 收穫豫想은 아즉 全部發表가 업스나 例年 凶作에 反하여 今年은 天候順調로 大豐作이 確實視되는 터이니 第一回豫想 第一、二次發表에 依하야 全國收穫高를 推想하면 昭和八年의 大豐作 七千八百萬石에 接近할 豫想으로 이미 九月中 整理될때에 淸算市勢는 三十圓台를 突破 大暴落을 告하얏고 朝鮮內正米市勢도 이에 追從 暴落되엇스며 이번 日本內地米 一回豫想의 一、二次發表로 十月限이 二十六圓七十九錢、大阪先限은 二十六圓八十八錢의 低價까지 잇섯다 이것을 投機市場仕手關係로만 보기어려운 것이 잇는 터로 何如間 日本內地豐作은 疑心할것이 업고 朝鮮도 實際는 凶作이나 新調査方法에 依하야 未曾有의 大豐作數字가 發表되엇스니 日本內地、朝鮮、臺灣을 通하야 需給關係를 보면 過剩米가 생길것은 必然의 事實이오 自治管理法의 發動을 免키어려울것으로 朝鮮米에 對하야서 現在의 統制比率을 適用케된다면

1、風水害로 만흔 사람이 生命을 일헛고 살어잇는 農民大衆도 凶作으로 살수업는 事情에다가
2、日本內地豐作으로 米價低落 矛盾된 現象으로 影響이 크겟고
3、그나마 自治管理法發動으로 日本內地로 移出量이 激減될것이니

× 이미 發表된 調査方法의 變改는 그 打擊은 二重三重 程度를 지나서 想像을 不許할 重大한 影響이 朝鮮에 닥처올것이다。 이미 道理가 업고 自治管理法發動을 免할수업는 以上 打擊을 바들것은 이미 豫測하여야 하겟지만 다만 바라기는 米穀自治管理法發動에 잇서서 朝鮮이 「凶作이나 豐作」이란 말할수업는 事情을 統制委員會에서 參酌하야 統制比率의 緩和나 해주기를 바랄뿐이다。 ―(終)―

調査方法變更으로 空前의 大豐作!

一千九百九十四萬二千餘石

朝鮮米一回豫想發表

【總督府發表】今年에 새로 定한 調査要綱에 基하야 九月二十日現在米第一回豫想收穫高를 調査함에 移秧當時에는 西北朝鮮中部朝鮮地方에 旱魃이 잇고 七月以降에는 全朝鮮的으로 降雨가 만코 過濕에 陷하야 特히 八月에는 南朝鮮 中部朝鮮地方에 風水害가 잇섯슬뿐아니라 九月에 들어서도 不良한 天候가 持續하기 때문에 全朝鮮的으로 穗首稻熱病의 慘害를 입어 此等에 因한 減收不少함이 豫想되엿다 이제 調査의 成績을 보매 作付反別에 잇서서 水稻百五十六萬四千二百七十町三反步 陸稻三萬三千六百七十八町八反步 合計百五十九萬七千九百四十九町一反步로서 前年에 比하야 水稻九萬一千八百五十七町六反步(五分五厘)의 減、陸稻四千七百三十町六反步(一割二分三厘)의 減 合計九萬六千五百九十町一反步(五分七厘)의 減을 보앗스나 收穫高에 잇서서 水稻千九百七十一萬七千九百十一石 陸稻二十二萬四千二百八十二石 合計千九百九十四萬二千百九十三石으로 前年實收高에 比하야 水稻二百八萬九千二百二十三石(一割一分九厘)의 增 陸稻三萬一千六百九十九石(一割二分六厘)의 減 合計二百五萬七千五百二十四石(一割一分五厘)의 增加를 豫想케되나 右收穫高의 增加는 調査方法의 改正에 起因한것이니 이에 參考로 本調査收穫高를 從來와 同樣의 調査方法으로 調査하면 水稻千五百二十九萬九千四百二石 陸稻二十二萬六千六百八石 合計千五百五十二萬六千十石으로 前年實收高에 比하야 水稻二百三十一萬二千四百六十六石(一割三分一厘)의 減 陸稻四萬六千百九十三石(一割六分九厘)의 減 合計二百三十五萬八千六百五十九石(一割三分二厘)의 減收이다

이제 米作付反別及收穫高累年對照表와 地方別前年比較表를 示하면 別表와 갓다

淸算米價慘落

朝鮮米一回豫想은 千九百九十四萬二千百九十三石으로 空前의 大豐作(今調査때문)이엇는데 이 發表를 본 後場市勢는 大阪期米先物 後場寄付 二十八圓八十八錢、朝取期米先物은 二十六圓八十七錢으로 前場低價와 別로 差異가 업스나 昨前場寄付價 大阪先限 三十圓〇三錢、仁川先物二十八圓丁에 比較하면 實로 大阪百十五丁、仁川百十三丁의 大暴落을 演出하엿는데 이는 朝鮮米收穫豫想의 意外增收와 日本內地米收穫豫想이 七千萬石에 接近하리라는 觀測에 基하야 豐作을 材料로 賣叩한 때문으로 今後米價의 動向은 極히 注目된다

米作付反別及豫想收穫高累年對照表 (△減)

年次	作付反別(町) 水稻	陸稻	計	收穫高(石) 水稻	陸稻	計
昭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一年(豫想)	一、五六四、二七〇、三	三三、六七八、八	一、五九七、九四九、一	一九、七一七、九一一	二二四、二八二	一九、九四二、一九三
昭和十一年豫想과前年과의增減	△九一、八五七、六	△四、七三〇、六	△九六、五九〇、一	二、〇八九、二二三	△三一、六九九	二、〇五七、五二四
同上比率	△〇割五分五厘	△一割二分三厘	△〇割五分七厘	一割一分九厘	[illegible]	一割一分五厘
前五個年平均(自昭和六年至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一年豫想과前五個年平均과의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上比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作付反別及豫想收穫高前年比較表 其一 豫想收穫高(石)

道名	昭和十一年豫想 水稻	陸稻	計	同十年實收 水稻	陸稻	計	比較增減(△減) 水稻	陸稻	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九、七一七、九一一	二二四、二八二	一九、九四二、一九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前 其二 作付反別(町)

道名	昭和十一年 水稻	陸稻	計	十年比較增減(△減) 水稻	陸稻	計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一、五六四、二七〇、三	三三、六七八、八	一、五九七、九四九、一	△九一、八五七、六	△四、七三〇、六	△九六、五九〇、一

備考 (一)本年의作付反別의調査는畦畔面積을差減하엿기때문이것 (二)旱魃에依하야相當植付不能의反別이잇섯슴에因한

新穀品質 各地모다不良

十一年產新穀은 早生出廻가잇는데 今年의 變態氣候와 稻熱病發生으로 各地가 모다 顯著히 品質이 不良하야 穀物檢査所에서도 搬入不足도 만흘것으로 이 現象에 形勢의 行進을 憂慮코잇다

殖產契新設 七百八十四

殖產契는 繼續하야 各道에서 新設을 急히한 結果 今年九月末現在로 今年分 新設契數 七百八十四에 達하고 契數는 總計九百七十八에 達하야 一千契을 實現하게 되엇는바 各道別契分布는 如左하다

京畿	一九二	忠北	九七
忠南	一二三	全北	六三
全南	五六	慶北	七四
慶南	四	黃海	三三
平南	六四	平北	五八
江原	一〇七	咸南	七四
咸北	三四	合計	九七八

殖銀米貸殘高

殖銀의九月末現在米資融通高는(單位圓)

農倉	五五八、〇〇〇
米倉	一、二一五、〇〇〇
正租倉	五四九、〇〇〇
其他	二、三七八、〇〇〇
合計	四、七〇〇、〇〇〇

으로 今年度最高貸出에 比하야 二千七百三十萬圓의 大激減을 보고 回收成績이 자못良好한데 前年同期에 比하야서는 二百八十萬圓의 增加이다

商銀米貸減少

商業銀行 九月末現在米穀資金貸出殘高는 擔保貸六十七萬圓、荷爲替四十九萬三千圓、合計百十六萬三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三十二萬二千圓、一月九日의 今年度最高貸出殘七百五十萬圓에 比하야 增加를 示하얏는데

全滿農產物 收穫豫想增收 千六百三十萬石

【新京電話】第二回全滿農產物收穫豫想高는 合計千六百三十六萬通으로 前年實收에 比하야 七十萬通의 增收이다 (單位萬通)

	豫想高	前年實收比較
大豆	四〇九	三〇
高粱	四一一	二〇
粟	三〇八	一六
玉蜀黍	二二二	二四
米	四三	一四
小麥	八三	△一七
合計(其他共)	一、六三六	七〇

實際大凶作

豐作으로誤解치말라 ◇…農林局長談

別途米第一回豫想收穫高는 一千九百九十四萬二千百九十三石으로 發表되엿는데 今年은 米穀自治管理法의 實施에 伴한 其基礎資料로서 米穀의 生產高 現在高及移動高를 根本的으로 調査하기로 되엿다 結果今日右調査에 基하야 米第一回豫想收穫高의 發表를 보게된것이다 此에 依하면 空前의 大豫想收穫高가 되엿슴으로 마치 今年은 意外의 豐作과 가티 誤解하는 便도 잇슬지 몰으나 右는 前述과 如히 今年부터 從來의 調査方法을 根本的으로 更改한 結果이고 格別히 今年이 增收된것은 아니다 此間의 事情을 알기爲하야 總督府에서는 從來와 同樣의 調査方法에 依한 調査도하여 參考資料로 하엿는바 其調査에 依하면 豫想收穫高 一千五百五十二萬六千十石으로 前年에 比하야 一割三分二厘의 減收로 되여 昭和四年以來의 大凶作으로 되엿다 此는 六月中旬의 西北朝鮮、中部朝鮮에 잇서서의 旱魃과 七月下旬以降에 잇서서 全朝鮮的의 惡天候로 溫害와 風水害特히 稻熱病의 全朝鮮的慘害에 因한 結果이다 結局發表된 第一回豫想收穫高 一千九百九十四萬二千百九十三石과 從來의 調査方法에 依한 第一回豫想收穫高 一千五百五十二萬六千十石과의 差異 四百四十一萬六千百八十三石은 新舊調査方法의 差異에 因한 數字上의 差異이다 第一回豫想收穫高의 發表에 當하야 特히 此點을 말하여 一般의 參考에 資하려한다 또 前年에 對한 增收는 實際의 增收가 아니고 調査上의 增收이어서 그만큼 統計上朝鮮內消費增加에 充當되여야 할것임을 附言하여둔다

自管法發動時 比率決定이問題

이번數字를基礎로하면큰일

事實은 大凶作이면서도 千九百九十四萬餘石이라는 空前의 大豐作의 數字를 示現한 今年의 米作은 各方面으로 誤算을 이르킬바도 만흐려니와 突然的인 數字로 當場에는 今年부터 實施케되는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如何에 影響이 잇슬 念慮가 잇다 即朝鮮側은 凶作을 傳하면서도 日本內地는 大豐作으로 벌서 前부터 剩餘米를 豫想하고 同法의 發動이 內面으로 準備되고잇는터인데 萬一同法의 發動을 보다면 朝鮮의 四三 日本內地의 三五 臺灣의 二二의 比率로 말하게 될 것이다 當然히 朝鮮도 移出米에 依存되어잇는 朝鮮米는 米價上大打擊이 잇슬것은 本來부터의 事實이러니와 今年과 가티 事實上凶作時는 그 比率의 變改가 잇슬것이라고는 하지만 今般의 收穫豫想高數字가 豫想以外인 만큼 萬一農林省其他의 方面에서 前記數字를 單純히 增收로만 본다면 朝鮮側으로서는 不少한 損을 보게될것이다 이에 關하야 總督府農林局石塚技師는 다음과 가티 말한다

朝鮮側으로서는 今後의 數字가 單純히 調査方法의 差로 因하야 數字上 增收이고 實은 千五百餘萬石이라는 數字를 充分히 認識케 할바이다 即從來에는 調査의 不備가 잇는 一方에 消費量도 從來四斗幾升이 잇다는것이 六斗幾升으로 計算케될바이다 그리고今般의 調査方式으로 四百數十萬石이라는 數字가 空中에 뜨는것인데 萬一이것이 平年作만되는 때이면 五百萬石으로 되여 今年을 平年이라고 한다면 二千三百萬內外가 될것임을 諒解하여야한다 그럼으로 自治管理를 하게된다해도 一千九百九十四萬石을 基礎로 할수는 업다

商況(三日) 搖之不動 閑散

株式 前場保合 今新場도 人氣를 繼續하야 朝新은 新百十六圓二十錢 鐘新百七十三圓九十錢 大新七十二圓二十錢 東新百二十七圓八十錢 日產八十一圓五十錢으로 保合閑散 不振

康益商店 仁川 米 株 京城 金益證券

經濟寸鉄

○ 新調査때문에 實際보다는 四百四十萬石의 增收로된셈
○ 何必日本內地大豐作、自管法이 發動하는 이때에 왜 調査方法을 變更하얏소
○ 千九百九十四萬石이란 空前의 大豐作數字를 發表
○ 未曾有의 風水害로 昭和四年以來大凶作임에 不拘코

佛新通貨安定點

磅=一〇一―一〇三法 弗=二〇法五〇―七五

【日電二日發同盟】佛政府는 新通貨法의 成立과 共히 公布實施되는 運用에 依하야 法貨를 磅當一〇一法과 一〇三法間 弗當二〇法五〇과 二〇法七五間에 維持할 方針이라한다 法貨의 安定點에 關하야서는 何等公表가 업섯스나 四國의 情勢로 推測하면 政府는 平衡資金의 運用으로 維持할 方針이라 한다

東新採合而已 環境不透明으로

東新株는 百三十七圓圈에서 膠着狀態를 보히고 不動하고잇는데 東新貳建의 原因은 惡材料도 惡材料니와 法貨切下後의 金鐵株에 買氣가 集中되고 또 軍需株만이 買株라고 보는 一部의 物色買로 因한 結果라고도 볼수잇다 그러나 軍需株나 雜株에 買氣가 再燃되면 當然한 順序로 또 主力株 新株에 買氣가 올기어올것이 順序라고 보아 過渡가 업다할것이다。요새가티 環境이 不透明한 때에는 오히려 雜株의 動向에 한번 注目해보는것이 將次主力株의 向方을 探索하는데 한暗示가 되지안흘가한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米價債는 又復反落하야 六分半三圓八十錢低 五分半一圓八十錢低를 告하엿다 課稅問題를 動機로 高利債에 對한 壓迫念慮가 濃厚化하야 所持側의 不安이 노파저서 嫌氣投物이 不絕하기 때문인데 一部에는 思惑的賣物도 相當히 잇서서 佛貨債와 日本內地債는 意外로 强하야 五錢程度의 區區浮動에 終하엿다

六感

㊑……市場에 氣迷가 기픈 때에는 飛付買、突入賣을 모다 警戒▲그러나 市勢가 動하기 始作하면 손댈 餘暇가 업는것이 常例▲그러면 따는 保合때에 市勢를 잘보아야 할터인데 이것이 市場人의 難所▲요새가튼 保合때에 主力株의 向方을 알려면 오히려 그周圍의 雜株의 動向에 注目함이 賢明하지안흘가……

㊍大阪穀物商組合에서는 例年米遂用稱이라고 凶作年에는 歡迎하지만는 豐作年에는 悲觀하는것▲日本內地米는 一回豫想 六千七百萬石인데 朝鮮米는 大凶作이지만 一千九百九十四萬石이라니 萬一 그러면 合計八千七百萬石이니 政府의 大量買上은 勢不避免▲本年은 米作調査方法이 改正되어 朝鮮米는 凶作임에도 豫想數字는 一千九百萬石이니 例年에 그만큼의 數字가 무처잇섯든 것을 알수잇스며 朝鮮米의 消費量 적어도 一千萬石以上인것을 足히 알수잇다고云云

大豐作의農家 그態度如何?

二年繼續凶作의 日本內地米作은 昭和六千八百萬石을 豫想하는 … 加한模樣이다

各地俄然慘落 豫想激增으로

問題의 職氣은 七百二十萬石以下의 優勢로서 近畿西北地方과 關西地方을 擁襲할形勢를 보이고잇슴에도 不拘하고 市勢는 反히 軟弱하야 阪地는 約百丁의 暴落 東京은 八十餘丁 當地는 七十丁의 瓦落을 告함에 至하엿다 그原因의 所在는 朝鮮米의 第一回豫想이 一千九百萬石臺라는 實로 意外의 數字를 보힘에 依하다는 情報와 日本內地米作은 第二次發表가 北海道外十二地方의 分이 一千五百餘萬石으로 昨年同期보다 四百餘萬石의 增加로 第一次增加分과 合算하면 六百萬石以上이 增收인데 남어지 二十一地方의 分을 合한다면 적어도 總計 六千八百萬石은 될것이라는 說이 濃厚하다 그래서 阪地買方主力側인 田中貞一派도 更히 防戰하지못하고 悲觀을 呈하며 此를 賣하는 方은 乘勝長驅의 勢力을 加한 模樣이다

期米 豐作發表 慘崩

前場崩落 昨後場阪地二十七圓四十九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〇二錢인 七十七丁瓦落을 捕하고 二十七圓〇四錢인 四十五丁低로 寄付된 後 俄然崩落하야 阪地八圓八十八錢까지 暴落하엿다가 九圓〇二錢으로 返戻하야 六圓七十九錢의 最低價를 내고 結局七圓〇四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下落 後場은 朝鮮米收穫第一回豫想 一千九百九十萬石이란 意外의 數字를 보고 二十六圓八十七錢인 十七錢低로 寄付하엿스나 前場에 이미 行動햇스므로 三節八十一錢으로 結局八十一錢에 止場하다。

各地正米

京城大下放 期米의 急暴落으로 人氣頗著히 惡化하야 一擧에 五十錢大下放이엇다 三等二七、七〇 四等二七、四〇

仁川奔落 日本內地豐作人氣에 五十錢奔落하야 價位訂正低가되여 一二三等二七、七〇 四等二七、四〇 一等白米三〇、〇〇

釜山軟調 定期暴落이나 實物이 薄하엿든만큼 比較的내리지안코 二十錢下放이엇다 當用必需品뿐이다 買方은 繼續하야 實買는 杜絕狀態이다 三等二九、三〇 四等二九、〇〇 一等白米 三一、八六

大邱崩落 豐作人氣騷歌에 定期의 急崩落을 보고 氣配五十錢의 瓦落을 演하였다 一般은 拱手傍觀의 態度로 賣買는 停頓狀態이다 三等二八、五〇 四等二八、三〇 一等白米 三一、九五

群山暴落 日本內地 朝鮮作豐豫想에 俄然人氣崩落되어 新米古米가 모다 一擧에 七十錢의 急暴落을 告하엿다 三等二八、三〇 四等二八、三〇 一等白米 三一、五〇

木浦引緩 定期氣崩에 二十錢低唱이엇스나 實物이 不添하야 極히 閑散場面이엇다 三等二九、一〇 四等二八、八〇 一等白米 三一、〇〇

堂島前場賣買

堂島前場賣買는 如左하다 買方 潮政、中東乘替 台灣側 賣方 朝鮮側 地場强氣 田中貞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買方 / 賣方) [illegible]

一二十六圓臺의 市勢는 更히實即 二十六圓臺의 市勢는 主張하는 模樣이다 果然新穀期에 入한 後의 農家의 態度가 마치何如할지 此가 가장注目되는바이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〇、六〇 ▲一回四分利 一〇〇、六〇 ▲二回四分利 一〇一、〇〇 ▲佛貨 一九六、六〇

今日財界 (三日)

◆米 (單位錢) 仁川正米、大阪米、東京米、京城正米、正租 [illegible]
◆株 朝新、東新、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大阪棉花、大阪人絹、大阪砂糖 [illegible]

金融 (三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穀類 (三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三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滿洲沖債◆ ◆鮮滿粕沖費◆ ◆日本麥粉市勢◆ ◆滿洲產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爪哇砂糖◆ ◆湖外砂糖◆ [illegible]

株式 (三日)

◆朝取短期◆ ◆實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短期氣配◆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三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